

김성균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www.bostonparkrealty.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빌러리카에 위치한 한국의 기업 루트로닉 글로벌본사에서 황혜령 회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기업 루트로닉 빌러리카에 본부 둔 이유

빌러리카 글로벌 본부, 세계확장 전초기지
루트로닉 황혜령 회장 "의료용 레이저 기술력 세계1위"
1.5세 황혜령 루트로닉 회장 한국서 창업 미국서 진검승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명술 기자 = 한 북쪽 빌러리카 소재 글로벌 본사에서 만났
다. 2017년 이곳에 둠지를 튼 이후 처음으로
(Lutronic) 황혜령 회장(65)을 11일 보스톤 한인사회에 루트로닉을 공개한 것이다.

팬데믹으로 빌러리카 본사에 근무하는 직
원은 20여명 남짓. 나머지 직원은 재택근무
중이다. 황 회장은 건물 복도를 지나며 방에
있는 직원, 회의실에 있는 직원들에게 빠짐
없이 "How you doing" 이라 먼저 활기찬
인사를 건네고 가벼운 답소를 나눴다.

근엄한 회장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영락
없는 코리안어메리칸이었다. 황회장은 태

권도 사범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12살 때 커
네티컷에 정착했다. 예일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 1997년 한국
내 최초 레이저 의료기기 회사인 루트로닉
을 창업했다.

연어가 강으로 돌아가 산란해 다시 바다
를 찾듯 2006년부터 다시 미국으로 진출했
다. "매년 매출의 15% ▶▶6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KATHY SONG PREMIER REALTY GROUP

고객만족도 평가 5/5을
보여주는 고객 최우선 서비스를
약속 드립니다.

주택, 상가, 비즈니스
매입 매매 상담 환영합니다.

Call Kathy Today 413.313.4165
Kathysong2019@gmail.com

애나 정 PREMIER REALTY GROUP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Korea licensed
Mu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bostonpremierrealty.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CENTURY 21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실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일린 박
REALTOR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매사추세츠한인회



매사추세츠 한인 동포 여러분, 평안을 기원합니다. 매사추세츠한인회 서명에 회장 이하 임원들 인사드립니다. 매사추세츠한인회칙 제4장 12조에 의해, 2021년 중회를 소집하며, 일정과 주요연건을 공고 합니다.

일정 : 2021년 6월 5일 오후 1:00
장소 : COVID-19으로인해 Zoom Meeting 과 직접참여를 병행 합니다.

Zoom Meeting ID : 785 089 1183
직접참여장소 : 북부보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주차장
244 Lowell St. Andover, MA 01810

- 주요안건
- 2021년 한인회장, 임원진 소개 와 인사
- 2020년 한인회 결산 감사보고
- 2021년 한인회 사업보고
- 기타 안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사업체와 가정에 어려움을 줍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욱 화합하고 사랑을 나누는 한인회를 다짐합니다.

정회원들께서는 꼭 참석하시어 의결안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종회당원 직접 참여하시면 정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인회 총회 대면 및 온라인으로 5일 진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온라인으로는 줌 아이디 785 089 1183로 참여가 가능하다. 대면으로 열리는 총회는 북부보스톤한인교회 (244 Lowell St, Andover) 주차장을 찾으면 된다. 한인회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더욱 화합하고 사랑을 나누는 한인회를 다짐한다" 고 말하고 "정회원들께서는 꼭 참석하시어 의결에 동참해달라" 고 밝혔다.

팬데믹 딛고 더욱 풍부해진 NEBS 학술대회

생명과학협회 연례학술대회 온라인으로 개최
하버드 김광수 교수, 예일 박인현 교수 기조연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과뉴잉글랜드지역의 한인 과학자 단체인 뉴잉글랜드 생명과학협회(NEBS)가 지난해 팬데믹으로 취소됐던 연례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29일 재개한다. 38년동안 그리고 29번째로 개최되는 올해 학술대회는 "위기를 기회를 낳는다" 는 것처럼온라인 플랫폼의 장점을 활용, 예년보다 더 많은 연사와 패널을 초청해 더욱 풍부해질 전망이다.

올해 연례 학술 대회는 2021년 5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미동부시간기준)까지 개최되며 이어서 후원사 소개 및 네트워킹 세션이 진행된다.

보스톤 총영사관의 유기준 총영사님의 축사로 시작해 뉴잉글랜드 지역에 계신 하버드 대학교의 김광수 교수와 예일 대학교의 박인

현 교수가 Keynote 연사로 강연한다. 이외에도 최근 훌륭한 업적을 이룬 포스닥 및 학생 연사들의 뜨거운 강연이 이어진다.

한편, 생명과학협회는 매년 컨퍼런스에는 한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던 아쉬움을 대신해 최종 등록자 200명에게 \$25상당의 Grubhub 바우처를 배포해 각자 집에서 원하는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준석 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딛고 더 큰 영역으로 확대되어 컨퍼런스를 치르는 만큼 위기를 기회로 삼는 발판이 됐으면 한다" 고 밝혔다.

컨퍼런스 등록은 NEBS Website(https://www.nebskorea.com/conference)에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문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악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희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Advertisement for Cambridge Dental Associates. Includes text: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Advertisement for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Includes text: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웨이랜드 등 수돗물 독성화학물질 검출된 지역 확대

주내 252개 1만명 이상 서비스 수도 중 50여개 기준 넘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수돗물에서 영구화학물질이라 불리는 PFAS의 주정부 검출 기준을 넘는 지역이 확대되면서 해당 타운들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서부에 위치한 웨이랜드의 경우 주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400여가정에 생수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수도공급원을 마련해야 하는 웨이랜드의 경우 타운 예산의 2배가 넘는 금액이 수자원 마련에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웨이랜드와 마찬가지로 내틱 또한 타운 수돗물의 하이테크 여과장치를 설치하는데 수백만달러를 쏟아부었다. 인근의 웰슬리의 경우 주민의 절반에게 공급하던 우물수자원을 폐쇄하면서 물 사용에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

주정부는 올해 주내 1만명 이상 인구에 공급되는 공중 수돗물 절반 정

도의 검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중 약 20%가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밝혔다.

5월 중순까지 242공중 수돗물에 대한 검사 결과가 발표됐으며 이중 50개 타운의 수돗물이 주정부 기준을 넘어섰다. 1천명 이하의 주민에게 공급되는 소형 공중 수돗물의 경우 내년에도 모두 PFAS 기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당수의 타운들은 수돗물을 다른 수자원과 섞거나 여과장치를 설치해 2차 검사에서는 주정부 검사 기준을 통과했다.

그러나 이스턴, 홀브룩, 랜돌프 등의 타운은 건강에 위협이 되는 PFAS의 검출량이 증대했음에도 계속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영구화학물질이라 불리는 PFAS는 결코 분해되지 않는다. 이는 프라이팬과 방수 옷 등에 사용되는 불소

계면활성제 (polyfluoroalkyl substances)로서 발암, 면역체계약화 및 각종 질병유발 요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정부는 지난해 가을 미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인 트릴리언당 20파트 농도를 기준으로 도입했다. 이는 올림픽 수영장에 20개의 곡식과 유사한 규모이다.

문제는 기준치를 넘어선 수돗물이 많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PFAS의 증가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독성이 너무 강해서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다.

주 환경부 관계자는 주정부의 기준을 계속 재평가 할 것이며 현재의 기준을 더욱 강력하게 하거나 PFAS를 담은 제품을 금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버몬트 주는 스카이악스, 카펫에 PFAS 사용을 금지했다.

주정부 검사결과 PFAS 기준을 초과한 타운은 대부분 보스톤 교외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애빙턴, 액튼, 에이어, 반스터블, 박스보로, 더들리, 이스턴, 내틱, 랜돌프, 스토우, 웨이랜드, 웨스트필드

보스톤을 비롯한 그레이터 보스톤 지역의 경우 매사추세츠수자원공사(MWRA)의 수돗물을 공급받아 PFAS가 검출되지 않았다.



한달에 \$50불 인터넷 보조 즉시 신청하세요

30억달러 자금 남아 있을 때까지 선착순 한시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구제계획(ASO)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비상브로드밴드혜택 프로그램(EBB)은 가정당 월 \$50씩 인터넷 비용을 지불하는 프로그램으로 상당수의 한인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가능한 한인들의 경우 소득이 연방빈곤선 135% 이하이거나 자녀들이 학교 무료 점심 프로그램 해당자인 경우 등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싱글의 경우 \$99,000이하 부부의 경우 198,000이하로 2020년 2월 29일 이후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정의 경우 신청 자격이 된다.

일단 신청자들은 매월 \$50의 인터넷 사용료 보조를 받을 수 있고 랩탑, 데스크탑 컴퓨터를 구입시 최대 \$100까지 한 가정당 1회에 한해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30억달러가 배정됐으며 돈이 모두 사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므로 한인가정들은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은 <https://getemergency-broadband.org>에 접속해 바로 시작할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번호를 반드시 제공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공할 경우 빨리 처리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 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독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Beef Soup for the Soul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SUMMER SPECIAL COLD NOODLES

물냉면 14.95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비빔냉면 14.95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CDC, 뉴잉글랜드 미국내 가장 백신 접종을 높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매사추세츠를 비롯한 뉴잉글랜드주 성인의 70% 이상이 최소한 1차례 접종했으며 이같은 접종율은 미국내 선두를 달리고 있다.

CDC의 데이터에 따르면 뉴잉글랜드의 6개주는 백신 접종의 여러 측면에서 여타 다른 미국 지역에 비해 앞서고 있다.

특히 6개주는 미국내 백신 접종율이 가장 높은 10개 주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최소 한차례 접종한 성인 접종율에서 앞서있다.

버몬트는 18세 이상중 81.9%가 최소 한차례 백신을 접종해 미국내 1위를 차지했다. 하와이는 79.1%, 뉴햄프셔는 77.7% 그리고 매사추세츠는 77.4%로 뒤를 이었다. 커네티컷은

74.3%로, 메인은 73.4%로 5,6위를 차지했다. 뉴저지는 72.5%로 7위, 로드아일랜드는 뉴잉글랜드에서 가장 낮은 70.9%로 전체 9위, 뉴멕시코는 70.2%로 10위였다.

뉴잉글랜드는 전체 인구 대비 최소 한차례 백신 접종율에서도 미국내 평균 49.5%에 비해 월등히 앞섰다. 특히 버몬트는 69.9%로 여전히 선두였으며 하와이는 65.3%로 뒤를 이었다. 매사추세츠는 65%로 64.5%의 뉴햄프셔를 앞섰다. 메인은 62.2%, 커네티컷은 62%, 로드아일랜드는 59.6%였다.

완전 접종을 마친 성인 비율에서는 버몬트가 64.3%, 커네티컷 64.1%, 그리고 매사추세츠는 62%, 로드아일랜드는 61.1%이다. 다만 뉴햄프셔의

경우 완전 접종율이 50.6%로 미국 평균에 가깝다.

완전접종을 마친 것은 2차 접종을 마치고 2주가 경과된 상태를 말한다. 미국내에서 전체인구 대비 완전접종이 완료된 비율이 50%가 넘는 주는 5개 주이며 모두 뉴잉글랜드 주이다. 미국내 평균은 39.5%이다.

버몬트는 전체인구 대비 53.1%가 접종을 마쳤고 메인은 52.9%, 커네티컷은 51.8%, 매사추세츠는 50.8%, 로드아일랜드는 50%가 완전 접종을 완료했다.

전체인구 대비 한차례 접종율이 가장 낮은 주는 미시시피로 33.6%에 불과했다. 루이지애나(35.1%), 앨라배마(35.8%), 와이오밍(36.6%), 아이다호(37%) 등은 그뒤를 이었다.

주정부 백신 5월말 사전 예약제 폐지

거동불편자 위한 가정방문접종도 확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주정부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백신 접종 사전예약제를 5월 말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백신 접종장소를 알려주는 vaxfinder.mass.gov는 여전히 운영할 예정이다.

베이커 행정부는 대신 24일부터 각 가정에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가정방문백신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전예약을 받았던 vaccine-signup.mass.gov는 25일부터 더 이상 예약을 받지 않고 있으며 이미 예약한 사람들의 경우 5월 31일 전까지 모두 예약을 완료한 후 완전히 문을 닫는다.

주내 백신 접종장소를 찾아 예약할 수 있는 vaxfinder.mass.gov는 여전히 오픈해 어디에 백신 접종장소가 있는지 검색할 수 있다. 이곳에서 예약없이 백신 접종이 가능한지 어떤 백신을 접종해 주

는지 등을 알아볼 수 있다. 매사추세츠는 1차 접종을 맞은 수에 있어서는 미국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5백만 이상되는 주중 백신접종율에 있어서는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매사추세츠는 백신 접종 초반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원성을 샀으나 구글클라우드팀과 협력해 사전 예약시스템을 도입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했다. 이후 약 2백만명이 사전예약제를 이용했다.

이 같은 사전예약제 폐지와 맞물려 거동이 힘들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주민들을 위한 제도인 가정방문백신접종프로그램을 확대했다. 가정방문접종을 원하는 경우 월-금 9시부터 5시 사이에 (833) 983-0485에 전화해 예약할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정관장

함께 이겨요!
함께 지켜요!

지금은 모두가 힘내 우리를 지켜야 할 시간
보스톤 정관장이 함께 합니다!

면역기능 강화
예방적 관리를 위한 면역 기능 강화

피로 회복
정신적 육체적 안정성을 유지하여, 스트레스 내성을 높이고 건강 기능의 균형 유지

기초 체력 향상
지구력과 인내력을 조화시켜 기초 체력의 기준을 향상

신진대사 강화
자연스럽게 체온을 활성화하여 신체 기능과 체력 전환이 순조롭게 작동

혈류 개선 효과
건강한 생체 리듬을 활성화하면서 신체 각 부위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위한 혈류 개선

홍삼정 240g 1개 구매시 정관장 홍삼정 30g 증정

면역력으로 이겨냅니다!
정관장 추가 증정 및 할인 프로모션
행사기간: ~8월 16일까지

에브리타임 2개 구입시 10포 증정

신제품 홍삼라떼 15% 할인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FedEx

마음대로 골라본다
\$24⁹⁹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화로 변경)

<p>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p> <p>\$24⁹⁹</p>	<p>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p> <p>\$34⁹⁹</p>	<p>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p> <p>\$39⁹⁹</p>
---	--	---

*전상품 1년 약정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방뉴스TV | MIBN |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맥도날드 BTS 메뉴, 26일부터 공식 런칭

오늘부터 세계적 팝스타의 최애 메뉴와 새로운 굿즈 등 직접 만날 수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맥도날드가 BTS 메뉴 세트를 26일부터 미 전역의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BTS의 시그니처 메뉴는 10피스치킨너겟, 미디움 사이즈 프라이, 미디움 사이즈 콕, 여기에 한국 McDonald's에서 개발한 레시피에서 영감을 얻은 스위트 칠리와 케이준 디핑 소스로 구성됐다.

맥도날드와 BTS는 오늘 저녁 7시 굿즈 라인을 위버스 샵(Weverse Shop) 앱에서 최초 공개한다. 후디,

보라색 목욕 가운, 양말, 샌달에 이르기까지 전신을 커버하는 이번 컬렉션은 BTS 세트에 포함된, 멤버들이 직접 고른 메뉴 아이템으로 이뤄졌다.

맥도날드의 프라이 박스 로고를 각 BTS 멤버를 상징하는 일곱개의 프라이로 만든 것부터, BTS의 보라색과 McDonald's의 빨강, 골드색을 결합시킨 것까지, 다양하다. 이 굿즈를 얻으려면, 위버스 샵 앱을 다운로드 받고, 어카운트를 만든 뒤, 굿즈 가런칭 순서를 기다리면 된다.

또한 맥도날드는 오늘부터 BTS 독점 디지털 콘텐츠를 매주 공개할 예정이며, 이 콘텐츠는 미국 내 맥도날드 앱에서만 볼 수 있다. 맥도날드는 지난주 발표와 함께 차트를 석권한 그룹의 신곡 "버터"가 피쳐링된 새 광고도 공개했다.

오늘밤부터는 오늘밤 전국 TV로 광고가 방송된다.

미국 내 고객들은 BTS 세트를 지금부터 6월 20일까지 주문할 수 있다. BTS 세트는 전 세계 약 50개 시장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미 주택가격 3월 13.2% 올라 15년만에 최대폭 급등

3월 주택가격 1년전보다 13.2% 올라, 적정 가격 주택 공급 필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의 3월 주택가격이 1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자 백악관이 우려를 표명했다.

25일(현지시간) CNBC방송 등에 따르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3월 전국주택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13.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5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10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전월 12%보다도 오름폭을 더 키운 것이다.

작년 3월과 비교해 1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12.8%, 2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13.3% 각각 뛰었다.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월 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2.4%를 1%포인트 가까이 상회했다.

전년 동월보다 20% 급등한 피닉스가 22개월 연속 미국에서 가

장 집값이 많이 오른 도시가 됐고 샌디에이고가 19.1% 상승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시애틀도 18.3% 올랐다. 보스톤은 14.8%로 4위를 차지했다.

지난 3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인 가운데 수급 불일치가 심화하면서 서가격이 더 튀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시장에 매물로 나온 주택은 107만 가구로 전년 동월보다 28.2% 급감한 상태다.

크레이그 라자라 S&P 다우존스 인다이스츠 운영이사는 "이번 데이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도심 아파트에서 교외 주택으로 옮겨가는 수요를 부추겼다는 가설과 일치한다"며 "이런 수요자들이 향후 몇 년에 걸쳐 발생할 주택 매매를 가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한국기업 루트로닉 빌러리카에 본부 둔 이유

▶▶1면에 이어서

를 연구개발에 투자” 해 한국 내에서 기술력으로 최고 위치를 차지한 후 미국, 독일 등 세계 65개국에서 점차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루트로닉에 있어 보스턴은 교두보다. 2007년 미국에 첫 진출한 이래 2017년 창립 20년을 맞아 보스턴에서 차로 30여분 떨어진 빌러리카의 19 Fortune Drive에 글로벌 본사 빌딩을 구입하며 본격적인 해외진출을 추진했다.

그는 창업 당시부터 미국시장을 노리고 있었다. 황혜령 회장은 “미용분야 레이저 기술력은 세계 1위”라며 “루트로닉 장비 1호기를 만들 때부터 첫번째 기준이 미국에 수출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최고의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장비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것이다.

세계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의 피부과에서 루트로닉 레이저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황혜령 회장은 자사제품 ‘할리우드 스펙트라’를 가리키며 “할리우드의 연예인들이 선호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실직한 수차례도 미국에서 위치는 굳건하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루트로닉의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휩쓸었던 지난해 매출은 9천8백만달러(1,155억원) 영업이익은 5백4십만달러(62억원)였다. 루트로닉의 수출비중은 70%가 넘는다. 주력 수출 해외시장이 미국과 유럽 등지이다.

한국의 하나금융투자는 ‘할리우드 스펙트라’와 ‘아큐핏’ 등의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루트로닉

의 올해 미국 지역 매출은 전년 대비 37.9% 증가한 46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2021년 매출은 1억3천만달러(1493억원), 영업이익은 2천1백만달러(246억원)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황 회장은 보스턴쪽에 본사를 둔 이유로 많은 인재를 꼽았다. 미국에 진출해 실리콘밸리에 자리를 잡았을 때 주요 인재들은 구글, 애플 등에 모두 빼앗겼으나 “보스턴에서는 정말 중요하고 좋은 인재를 모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연구개발은 한국에서 주로 진행하며 보스턴에서는 임상개발과 마케팅을 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초의 1.5세 한국 성장 기업인

황 회장은 예일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레이저 기기회사인 레이저 시스템즈 아시아 지역 마케팅 담당 부사장까지 올랐으나 돌연 귀국을 결정했다.

어릴 때 미국에 와서 대학까지 마친 황 회장에게 한국은 고향이란 의미 외에는 특별한 친구도 학맥, 인맥도 없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회사를 창업해 지금의 루트로닉을 만들었다.

루트로닉이 생기기 전까지 한국에서 쓰이는 모든 레이저 의료기는 외국산이었다. 사촌이자 친구인 성형외과의 권유로 1997년 루트로닉을 창업했다. 7월 창업한 이후 6개월 만인 12월 IMF외환위기가 들이닥쳤다.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롤렉스 손목시계를 팔아야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안 좋았다.

황 회장은 “실패의 이유는 많다. 그러나 (어려웠지만) 실패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주어진 환경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다. 지금처럼 대규모 회사를 만들겠다고 생각하진 않았다.”고 어려웠던 당시를 극복하게 한 동인을 이야기 했다.

결국 자본금이 바닥났으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보증기금의 지원을 받으면서 레이저 신제품 개발에 성공, 기사화할 수 있었다.

1.5세란 특유의 상황은 황회장에게 큰 장점이다. 그는 인터뷰 중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든 게 같다. 사람을 존중해 주고 시장을 볼 때 비즈니스 기회를 잘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은연중에 드러난 것이다.

팬데믹 중 세계 시장에서의 선전

2006년 상장한 루트로닉은 2021년 1분기에 시장 예상치(컨센서스)를 웃도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루트로닉의 1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은 2천935만달러(328억원), 영업이익은 2백86만달러(3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8% 늘었고, 영업이익률은 흑자 전환했다. 영업이익률은 10%다.

주요 해외법인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미국과 독일, 중국 법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 103% 207% 증가했다. 제품별로는 고가의 신제품 장비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50%를 웃돌면서, 매출총이익률이 57%로 개선됐다.

2분기에도 성수기 수준의 매출을 낼 전망이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고 조은애 이베스트투자증권



빌러리카 글로벌 본부, 미국 및 세계 확장 전초기지

연구원은 판단했다. 그는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한 3천4백만달러(380억원)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안과 치료 기기로 유니콘을 노린다

미용의료기기분야에서 탄탄한 성장을 이룬 루트로닉은 현재 임상 실험중인 노인성 황반변성(AMD) 안과치료기 알젠(R:GEN)으로 유니콘기업 성장을 노리고 있다. 유니콘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말한다.

루트로닉이 특허를 보유한 알젠은 유일한 노인성 황반변성 레이저 치료기이다. 루트로닉은 알젠으로 치료 가능한 중심장액맥락망막병증(CSC), 당뇨병성 황반부종(DME), 연령 관련 황반변성(AMD) 등의 환자가 세계 1억8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루트로닉의 3월 10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호주 멜버른에서 임상시험 치료를 시작해 진행하고 있다. 이 임상에서는 30여명의 초기 단계 노인성 황반변성 환자를 2주에서 48주까지 치료한 후 효율성을 평가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인성 황반변성 전문가이자 핵심 오피니언 리더인 로빈 게이머(Robyn Guymer) 교

수가 이번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황혜령 회장은 “지난 10여년 동안 4천만달러의 들여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것을 성공하면 몇십억달러의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회장이 이 연구에 더욱 몰두하고 있는 것은 루트로닉 미래를 이 치료기에 걸고 있는 것은 물론 자신의 아버지가 노인성 황반변성을 앓았기 때문이다. 황 회장의 동생이자 루트로닉 미국본사의 대표 변호사인 성 황씨는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기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 2세들의 롤모델

기업창업 당시 황 회장의 발걸음은 한국을 향했지만 그의 모든 타겟은 미국을 향하고 있었다. 최고의 장비로 최고의 시장을 점령하겠다는 그의 신념은 미국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던 수많은 코리안어메리칸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다.

한인사회에 대한 이해력도 남다르다. 한인사회에 대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길을 찾겠다는 황 회장이다. 황회장의 매제인 흥진섭 전 평통회장은 “한인사회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미국서 자라나는 2세들의 롤모델로 그리고 멘토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공인 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하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제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 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성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한인 전 패트리어츠 풋볼 선수 아시안차별 경험 고백

NFL팀 면접관, 당신은 '적절한' 소수민족이 아니라 소수민족에 끼지 못하는 '보이지않는' 소수민족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는 전 패트리어츠 오픈시브 태클이었던 한인 2세 유전 정 NFL 코치가 이번 오프시즌 동안 프로풋볼팀 헤드 코치 직을 인터뷰 했다가 어이없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들었다고 털어냈다.

보스턴글로브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유전 정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험과 그동안의 공적 등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코치직 능력을 어필하고 있는데 한 면접관이 그의 말을 자르고 “당신은 정말 소수민족이 아니군요” 라고 말했다.

한국계인 정씨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정씨는 순식간에 마지막으로 자신을 본 것을 생각했고, 거울을 보며 이를 닦을 때 자신이 소수민족(minority)이었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소수민족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물었다.

심사관은 “당신은 우리가 찾던 적절한 소수민족이 아니란 말입니다” 라고 응답했다. 정씨는 이 상황이 낯설지 않았다.

“그때 나는 그가 말하는 (차별적인)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 큰 충격을 받았고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얼어붙는 경험했다. 그리고 내가 제대로 들은 것인가하고 뇌내였다” 고 그는 밝혔다.

정씨는 심사관에게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심사관이 뜻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사

실상 상투적인 것에 불과했다. 수년간의 NFL코치직을 지냈고 아시안으로는 첫 감독이 되려고 하는 순간이었기에 그에게 그 같은 말은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었다.

내셔널풋볼리그(NFL)는 소수민족이 많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루니규정(Rooney Rule)을 만들어 각 구단은 감독과 코디네이터 직이 비게 되는 경우 반드시 2명의 소수민족 후보를 면접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구단주들은 11월에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소수민족 코치를 영입하는 팀에게는 유리한 드레프트 조건을 보상으로 내걸었다.

로저 구델 NFL 총재는 “소수민족 출신들에게 감독과 주요 코치직 전반에 기회를 주기 위해 모든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에 계속 집중할 것이며 꼭 개선되기를 원하는 분야이다” 라고 당시 밝혔었다.

NFL의 이 같은 다양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 후보들은 코치직에서 그냥 지나쳐가고 있어 이 같은 규정의 실제적 효용성에 대해 많은 의문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선수로서 은퇴하면서 정씨는 다시 풋볼에 복귀하기 전에 다른 분야에서 일했다. 그는 2010년 앤디 리드 감독의 오픈시브라인 코치 보조로 처음으로 코치직을 얻었다. 리드 감독은 2013년 캔사스시티 칩스로 이적했고 정씨도 같은 직을 유지하며 리드 감독을 따라갔다.

정 코치는 2016년 덕 페더슨 감독의

스텝으로 다시 이글스에 복귀했다. 그는 좀더 확대된 역할을 맡았으며 오픈시브라인을 물론 타이트 엔드와 러닝게임 운영의 책임까지 맡았다. 그리고 2018년에는 패트리어츠를 뛰고 슈퍼볼을 차지했다. 정 코치는 2019년 1월 이글스에서 떠나면서 그의 계약은 만료됐고 지금까지 코치직을 맡지 않았다.

“나에게 이 직업에서 나는 소수민족으로 보고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 모른다” 고 그는 말했다.

인터뷰 이후 정씨는 아시안어메리칸으로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게 됐다. 1992년 13번째로 패트리어츠가 그를 선택했을 때 그는 첫번째 라운드에서 드레프트된 첫 아시안어메리칸이었다. 그는 NFL에서 선수로 뛰는 세번째 아시안이었고 두번째 코리안어메리칸이었다.

NFL에서 아시안이 선수가 되는 것이 너무 드물었기에 당시 에이전트는 정씨에게 어떻게 해서 정씨란 성을 갖게 됐는지 물었다. 그는 “아빠도 한국인, 엄마도 한국인 그래서 그게 내 성이다” 라고 했더니 그들은 “그래 한국인이야?” 라고 물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풋볼 이전의 어릴 때까지 생각이 미치게 됐다. 그는 노던 버지니아의 백인 커뮤니티에서 자신들의 동료학생들이 놀리던 것까지 기억해 낼 수 있었다. 정씨는 인종차별적 언어는 물론 그의 작은 눈을 가지고 놀리던 경험까지 있었다. 한 친구는 (작은 눈)으로 볼 수 있냐고 물었고 다른 친구는 “오늘 아침으로 밥이 어땠냐” 고 물었다.

초등학생으로 정씨는 최선을 다해

이 같은 놀림에 맞섰지만 때론 선생님에게 이를 말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교사들은 그의 말을 무시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들어가 앉아라” 라고 말하고선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 그거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라고 털어냈다.

정씨는 그 교사의 침묵과 심사관의 발언이 거의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고 있다. 아시안은 보이지 않는(무시당하는) 소수민족이다. 이 같은 관념은 아시안들에 대한 혐오폭력까지 확대된다.

“돌아보면 이는 같은 일이다” 라고 정씨는 말했다. “다른 두가지 차원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일이다. 이들은 결국 사라질 사람들이니 그냥 양탄자 밑에다 덮자 라는 것과 같다” 고 지적했다.

어린시절에도 그랬듯이 51세가 된 정씨는 결코 인종차별적 발언을 경험하면 적극 대응하려고 노력한다.

한번은 게임전 구장에 있을 때 한 팬이 “헤이 미스터 미야기, 뭘 가르치나 가라테?” 라고 소리쳤다. 정씨는 트랙에서 돌아서서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그냥 대부분이 그렇듯 도망쳐버렸다” 고 회상했다.

“나는 언제나 내가 아시안이고 한국인 것이 자랑스러웠다. 내 삶에 있어서 한번도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 고 밝혔다.

정씨는 자신의 두 아들에게도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첫째 카일은 버지니아 테크의 오픈시브 라인코치다. “너는 다르다. 이것이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른지에 대한 답이다. 그것이 결코 사람으로서 선수로서, 코치로서 전혀 더하거나 덜하지 않다는 것이다.” 라고 강조한다.



한인 2세 유전 정 NFL 코치

NFL차원에서 무엇인가 바뀌어야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정씨는 여전히 멘토로서 생각하고 있는 앤디 리드 감독에 대해 많은 칭찬을 했다. 그는 NFL감독들은 아시안들을 잘 받아들이지만 채용 절차에 있어 아시안에 대한 인식은 문제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정씨는 “NFL에는 다름을 포용하는 많은 감독들과 멘토들이 있기에 결코 NFL을 비난하고 싶지 않다. 아시안들은 인종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이 나를 분노케 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아시안에 대한 이 같은 묘사들이 언제쯤 개선될지 모르겠지만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는 그것을 이루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면 결코 (아시안 차별을) 모르게 될 것이다” 고 정씨는 밝혔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 지사 에서 민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 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판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께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경리 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Michelle Han CPA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내 자녀에게 백신을 접종해야 할까요?

가정주치의로서 저는 연방식품의약국(FDA)이 12~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화이자-바이오N텍의 백신을 승인한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같은 주에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백신 안전성 검토 패널과 서부 주들의 과학적 안전성 검토 작업 그룹도 이 백신이 심각한 질병, 입원 및 사망으로부터 해당 연령대를 보호하는데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권고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캘리포니아 주내 16~17세 연령대의 30% 이상을 포함해 수백만 명의 성인들에게 이미 안전하게 투여되었습니다. 저의 14세 조카 2명도 최근 백신을 접종 받았습니다. 정말 안심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궁금증이 많다는 것도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은 부모들을 위해 여기 12~15세 대상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백신은 12~15세 청소년에게 안전한가요?

답변: 임상 시험에서 코로나-19 백신은 12~15세 연령대에 안전하며 심각한 질병, 입원, 사망으로부터 매우 효과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FDA가 이 연령 그룹에 대한 화이자 백신 사용을 긴급 승인한 것입니다. 서부 주들의 과학 안전 검토 작업 그룹은 CDC가 FDA의 승인을 검토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소집된 후 며칠 뒤 권장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질문: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났나요?

답변: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성인들이 겪는 것과 같습니다. 팔의 통증, 발열, 피로, 오한, 두통, 메스

꺼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전혀 증상이 없으며 또 다른 일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증상을 겪습니다.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경미한 증상들은 정상이며 신체가 면역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백신이 우리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백신은 12~15세 연령 그룹을 대상으로 철저히 시험했나요? 화이자 백신과 청소년에 관한 연구 결과를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답변: 화이자의 3차 임상 시험에는 미국에서 12~15세의 청소년 2,260명이 참여했습니다. 연구진은 백신을 접종 받은 어린이 중에는 전무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위약 그룹에서는 18건을 기록했으며 이는 심각한 질병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임상 시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여기 (<https://www.pfizer.com/news/press-release/press-release-detail/pfizer-biontech-announce-positive-topline-results-pivot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청소년의 감염 사례가 낮고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왜 제 자녀에게 백신을 접종해야 하나요?

답변: 더 많은 16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들이 예방 접종을 받게 되면 우리의 초점은 취약 계층에 머물러 있는 젊은층 연구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미 소아과 학회는 2021년 5월 미국에서 청소년이 코로나-19 발병 사례의 22%를 차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청소년 발병 사례는 불과 3% 정도였습니다. 이제

성인들이 백신을 접종 받았기 때문에 12~15세 연령을 시작으로 젊은층의 새로운 감염 사례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중요합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예방 접종을 받을수록 코로나-19 확산을 더 많이 막을 수 있고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취약한 사람들의 수가 줄어듭니다. 12~15세 연령대가 백신을 접종 받으면서 가족들은 휴가를 떠나고, 대면 수업을 재개하고, 운동을 하고, 외박을 하는 등 더 많은 외부 활동을 펼치면서 더욱 안전할 수 있고 우리가 평소 즐기던 것들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저의 청소년 자녀가 백신을 접종 받았다면, 그래도 그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하기는 하지만 가능성은 훨씬 적습니다. 백신이 바이러스로부터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면역력을 갖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과학자들이 이를 연구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백신을 접종 받은 후에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포함한 안전 예방 조치를 지속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위험성 증가로 인해 백신을 접종 받으면 안되는 청소년이 있나요?

답변: 건강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있다면 의료 서비스 제공자, 지역사회 의료원, 공중 보건 사무소 등에 문의하세요.

질문: 16세 이상이 접종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백신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16~17세 청소년의 30% 이상을 포함해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주 성인들에게 이미 안전하게 투여되었습니다. 임상 시험은 발열, 피로, 두통 등 심

각하지 않은 부작용 증상을 보인 청소년과 젊은층에게 안전하며 매우 효과적임을 입증했습니다. 이것은 16세 이상에 이미 투여되었던 것과 동일한 백신이며 유아를 제외한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투여되는 독감 백신과 매우 유사합니다.

질문: 이 백신은 왜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나요? 그보다 어린 아동들에게는 언제 백신 접종이 가능하게 될까요?

답변: 백신 시험과 승인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있고 취약한 집단에서 시작되어 젊은 연령층으로 점차 확대됩니다. 청소년은 성인에 가장 가깝고 어린 아이들보다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중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다음 우선 순위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안전성과 신속성에 대한 필요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동시에 백신 개발 과정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모두 12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 결과에 따라 다음 연령 그룹에 대한 승인이 올해 말에 이뤄질 수 있습니다. 존슨 & 존슨은 현재 12~17세 연령 그룹에 대한 임상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질문: 자녀들이 대면 수업을 받으러 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해 백신 접종이 필수로 요구되지는 않지만 주정부의 공중 보건 목표는 신학기 개학에 앞서서 다가오는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210만명에 달하는 12~15세 대상 접종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세 이상 청소년들이 학

교 교실 안팎에서 코로나-19로부터 보호 받고 있다는 사실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질문: mRNA 백신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 백신이 자녀들의 유전자를 바꾸나요?

답변: 이 mRNA 또는 '메신저 RNA' 백신은 우리 세포들이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생성하는데 도움을 주어 치명적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이 mRNA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생성된 후 세포에서 빠르게 분해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유전자를 바꾸지 않으며 그 어떠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백신을 만드는 기술은 지난 20여년에 걸쳐 개발되었습니다. 메신저 RNA는 독감, 지카, 광견병 및 새로운 암 치료를 위해 10년에 걸쳐 연구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백신 타입은 우리가 공중 보건의 위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하도록 돕기 위해 화이자와 모더나가 제조하는 것입니다.

김벌리 S. G. 장, 의학박사(MD), 공중보건석사(MPH)

의학박사이자 공중보건석사인 김벌리 S. G. 장은 캘리포니아 오글랜드에 있는 '아시안 헬스 서비스(AHS)'에서 근무하는 가정 주치의입니다. 장 박사는 하버드 대학에서 커먼웰스 펀드 소수계 의료 정책 펠로우십을 수료하면서 인신 매매 문제 해결에 있어 연방 자격을 갖춘 보건 센터의 역할을 조사했습니다. 이에 앞서 장 박사는 AHS의 프랭크 키링 메디컬 센터의 초대 임상 디렉터였으며 상업적으로 성적 착취를 당한 어린이들을 돌봤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전미 지역사회 보건센터 이사회의 하원 부의장을 역임했고 미국 공중 보건 협회의 여성 권리 위원회에도 임명되었습니다.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mw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매일 3분 이것만 하세요 -3kg 감량 보장!

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있으시죠? 거의 매일 온&오프라인 수업이 있는 저도 가끔씩은 피가 나고 게을러지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때 제가 찾는 것이 바로 음악입니다. 다소기운이 없던 몸과 우울한 마음까지도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전신 타바타운동 3분 어떨까요? 최근 제 유튜브 영상에서 BTS(방탄소년단) BUTTER영상을 찾아서 해보세요. 이번 여름을 겨냥한 신나는 비트에 따라 운동하다보면 3분도 안되어 땀도 나고 기분도 상쾌해질거예요. 물론 체중감량효과는 덤으로 가져가시구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YOGA SONG - HAYEON 을 검색,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매주 업데이트 되는 요가 & 필라테스 영상을 받아 보실 수 있어요)

첫번째로 배운 운동은 PLANK입니다. (기초체력/코어/팔)

STEP 1. 네발기기 Table Top에서 한다리



씩 뒤로 보내 무릎을 바닥에서 떼어줍니다.

STEP 2. 복부를 등쪽으로 강하게 당겨 코어의 힘을 느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긴 일직선을 만들어주세요

POINT! 어깨를 귀에서 멀리 뒤로 보내 목의 긴장을 풀상태를 유지하며 일정하게 호흡해주세요

두번째 자세는 Shoulder Taps 입니다. (상급자 코어)

STEP 1. 첫번째 자세에서 좀더 오래 홀딩 하셔도 좋고, 가능하다면 한손으로 다른편 어깨를 터치하는 변형자세에 도전해보도록 합니다.

POINT! 처음부터 잘 안된다고 좌절할 필요없어요. 두발을 서로 조금 멀게 거리를 유지하면 복부를 수축하면, 엉덩이나 상체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STEP 2. 좌우로 한번씩 번갈아가며 어깨를 치고 다 끝나면 다음동작으로 위해 상체를 일



어켜 서줄게요.

라이브 ZOOM 무료 체험 온라인 클래스

현재 매주 3회 온라인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꾸준히 집에서 운동하며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이니 1회 무료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카톡아이디 yogafulnesslife 로 본인 이메일

주소와 함께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초보자도 대.환.영.입니다!!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ness.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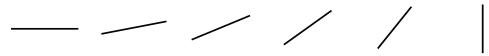
보스톤 **근기아**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COMPASS



Our mission is to help everyone
find their place in the world.



Why Compass 왜 컴파스인가?

- 부동산 서비스와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프롭테크(PropTech) 기업
부동산(property) + 기술(technology) = 컴파스 (Compass)
- 부동산 구매자와 에이전트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매물 검색과 개인화된 매물추천,
부동산 거래 관련 상호 커뮤니케이션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통합 부동산 플랫폼 제공
-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5000억원 투자한 회사
- 저스틴 월슨 비전펀드 선임 투자전문가 “컴파스는 주택 구매자와 중개업자를
연결해주는 차별화된 기술 플랫폼을 갖추고 있어 이 분야에서 입지가 탄탄한 기업”
- 2019년 판매량 기준 보스턴 및 케임브리지 1위 (Source: MLS)
- 750+ Agents in Greater Boston
- Operates in 20 U.S. markets including New York, Philadelphia, Boston,
LA, Chicago, Washington D.C., Dallas, etc.

Agent Introduction 에이전트 소개

안녕하세요, 제이슨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로 미국 최고의 부동산 회사인 컴파스와
함께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부동산 토탈 서비스를 가지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컴파스에서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과 최고의 정보기술과 함께,
헌신 (dedication), 믿음 (Trust), 결단력 (Determination) 을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거래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ompass 와 함께 차원이 다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슨 드림



Jason Jeon 제이슨 전
Realtor®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com

Compass Services

Compass Concierge 컴파스 컨시어지

컴파스 컨시어지는 셀러에게 무이자로 주택 개선 비용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페인트, 바닥, 스테이징 등
집 리모델링에 관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의 가치를 최대한 올려 더 빠르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Compass Coming Soon 컴파스커밍순

compass.com 에 부동산을 시장에 출시 될 예정임을
사전에 광고하여, 사이트를 검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과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Compass Bridge Loan Services 컴파스 브릿지론

컴파스 브릿지론은 최대 6개월의 브릿지대출의 대출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브릿지 대출 기관인 Freedom Mortgage, Better.com 의
경쟁력있는 이자율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Compass i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All material presented herein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nformation is compiled from sources deemed reliable but is subject to errors, omissions, changes in price, condition, sale, or withdrawal without notice. No statement is made as to the accuracy of any description. All measurements and square footages are approximate. This is not intended to solicit property already listed. Nothing herein shall be construed as legal, accounting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utside the realm of real estate brokerage.

IRS, 대기업·고소득자 탈세 잡을 요원 5천명 채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재무부가 대기업과 글로벌 부호, 고소득자의 탈세를 잡는 데 초점을 맞춘 국세청 전문 집행 직원 5000명을 뽑는다. 시장 가치 1만달러(약 113만원)가 넘는 가상자산을 받는 기업은 국세청에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과세 집행력을 끌어올려 실제 내야 하는 세금과 납부한 세금의 차액(텍스갭)을 줄이려는 차원이다.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미국 가족 계획 세금 준수 어젠다'를 발표했다.

복지 법안인 '미국 가족 계획' 실행에 들어갈 최소 1조5000억달러(약 1670조8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려고 산하 기관인 국세청을 통해 이제까지 줄줄 섰던 세금을 최대한 끌어 모으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것이다.

목표는 향후 10년간 추가 세수 7000억달러(약 779조7300억원) 확보로 잡았다. 그 이후 10년간은 1조6000억달러다.

재무부는 이날 현행 텍스갭이 연간 약 600억달러라고 설명했다. 갇혀지 않은 세금만 잘 추려내도 산술적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지출 계획에 도움이 되는 수준이다.

재무부는 "핵심은 조세 집행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며 "텍스갭을 줄이려는 건 대부분의 미국 근로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만, 불투명한 출처에서 이익을 축적하는 고소득자는 그렇지 않은 '두 단계 조세 체계(two-tiered tax system)'를 끝내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고소득자를 겨냥한 전문 집행 인력 5000명을 고용한다. 국세청 예산을 향후 10년간 현재보다 50% 가량 증가한 800억달러로 늘린다는 복안인데, 상당액은 인력 보강에 투입한다. 정보기술 시스템 현대화, 보안 등엔 약 60억달러를 투자한다.

기업과 고소득 납세자에 대해 허술했던 감독망을 촘촘하게 다시 짜야 할 필요성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자산 200억달러 이상인 기업의 납세 감사율은 2010년 98%에서 2018년 50%로 하락했다. 1000만달러 이상 벌어들인 납세자의 이 비율도 같은 기간 19%에서 7%로 떨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납세자의 감사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특히 부자에 대한 감사가 두드러지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의 예산을 늘리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공화당은 반대할 걸로 관측된다고 WP는 전했다.

이번 어젠다엔 은행과 가상자산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자수입으로 10달러 이상을 번 납세자에 대해 은행은 기존에도 보고 의무가 있었는데

미국의 세금 신고주체별 감사율 하락 현황

(단위:%)



앞으로 법인·개인 계좌상의 자금 유·출입에 대해 추가 데이터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재무부는 아울러 가상자산,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가상자산을 허용하는 결제 서비스 계좌도 보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밝혔다. 공정 시장 가치가 1만달러 이상인 가상자산을 받는 기업은 보고를 해야 한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은 시가 총액이 2조달러로 성장해 중요한 관심사"라

며 "가상자산은 탈세를 포함해 광범위하게 불법 활동을 촉진해 심각한 탐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정책 분석가인 더글라스 홀츠-이킨 전 의회예산처(CBO) 이사는 이번 어젠다에 대해 "태양아래에서 7000억달러를 벌 방법은 없다. 2500억달러라면 매우 기쁠 것"이라며 "완전히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hsb@bostonkorea.com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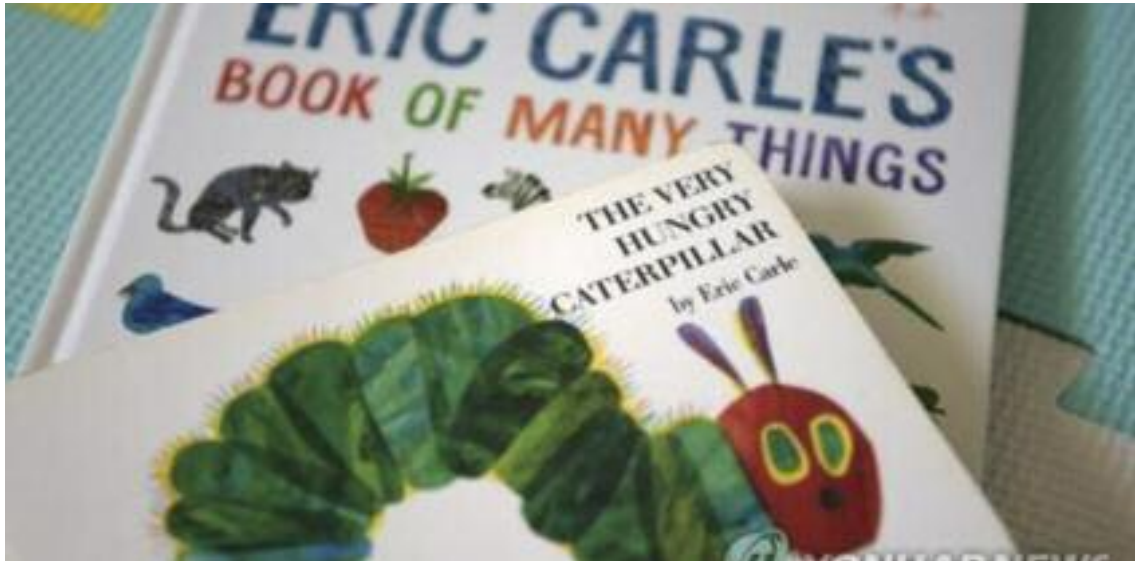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산 자가진단 코로나 테스트 키트 판매 합니다. 개당 \$50"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배고픈 애벌레 쓴 미국 동화작가 에릭 칼 91세로 숨져

배고픈 애벌레' 쓴 그림동화 거장 에릭 칼 별세...향년 91세

배고픈 애벌레는 희망에 관한 책...누구든 날개 펼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동화 '배고픈 애벌레'를 쓴 미국 작가 에릭 칼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별세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91세.

칼의 유족은 칼이 23일 매사추세츠주 노스앰튼에 있는 작업실에서 신부전으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AP통신과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이 26일 보도했다.

칼의 대표작은 '배고픈 애벌레'(The Very Hungry Caterpillar)다.

1969년 6월 처음 출간된 배고픈 애벌레는 허기진 애벌레 한 마리가 일주일 동안 음식을 먹고 자라나 나비로 성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출판사 펄컨 랜덤하우스에 따르면 224개 단어와 그림들로 구성된 이 책은 한국어를 포함한 70여개 언어로 번역돼 5천500만부 넘게 팔렸다.

배고픈 애벌레는 당초 책벌레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로 만들어졌다가 편집자 권유를 통해 지금과 같은 이야기로 탈바꿈한 것으로 알려졌다.

칼은 1994년 NYT 인터뷰에서 '배고픈 애벌레는 희망에 관한 책'이라며 '누구든지 성장하고 날개를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외에도 칼은 '나랑 친구 할래?'(Do You Want to Be My Friend?), '머리부터 발끝까지'(From Head to Toe) 등 작품 70여편을 통해 간단한 단어와 밝은 색상으로 세계관을 그려냈다.

칼은 1999년 문학상 '리자이나 메달', 2003년 아동문학상 '로라 잉겔스 와일더상'을 받았다.

칼은 1929년 6월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로 이주한 독일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그는 6살이 됐을 때 향수병을 호소하던 어머니 요하나의 고향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돌아갔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아버지 에리히는 군에 징집됐다. 가 러시아에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칼 자신도 15살이 되던 해 군대에 끌려갈 뻔했지만, 독일-프랑스 국경에 있는 요새 '지크프리트선'의 참호 작업에 동원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그는 이러한 경험 때문에 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을 갖게 됐다고 회고한 바 있다.

전쟁이 끝난 후 칼은 타이포그래피와 그래픽 예술을 공부하던 슈투트가르트 국립미술대를 1950년 졸업했고, 2년 뒤 미국 뉴욕으로 다시 건너가 NYT에서 삽화를 그리거나 광고 디자인을 만들면서 생활했다.

재무 "높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연말까지 지속"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의 고(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현상으로 연말까지 지속하다 이후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 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지금 당장 판단은 우리가 본 최근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점"이라며 "고질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이것이 몇 달 더 지속하고 연말까지 높은 연율의 인플레이션을 볼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4월 생산자물가지수와 도매물가지수는 공히 전년 동월보다 6.2%씩 올라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 것은 물론 2010년 노동부의 통계 작성 시작 이래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천문학적 금액의 재정을 풀고 제로금리 수준의 확장적 통화정책을 펼친 부작용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옐런 장관은 물가 상승이 전염병 대유행, 공급망 병목 현상과 관련된 지출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이 일부 품목의 공급난,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낮아진 데 따른 기저효과 등에 의한 것으로서 예상했던 상황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설명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옐런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와 다른 지출 프로젝트가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에도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신신마트 당일배송

배달 서비스

EXPRESS DELIVERY

각종 고기와 반찬, 쌀, 라면, 야채, 과자 뿐만 아니라 신선한 생선회(Mr. Sushi) 등을 12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안전하게 당일 배송해 드립니다.

\$100불 이상 / 배송비 10불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Free Delivery 해드립니다.

가격과 품질에 정직합니다

정성들여 만든 신신 스페셜

얼큰한 해물 짬뽕국물 (\$7.99)

순두부 (\$7.99)

육개장 (\$9.99)

싱싱한 홈메이드 신신만두 (\$25.00) (고기만두, 김치만두)

신신 가을 이벤트

오뚜기 설렁탕 혹은 사골곰탕

1 FREE \$150.00 or more

2 FREE \$250.00

3 FREE \$350.00 or more

ALL 유기농 늘푸른 농장

한국포도 \$19.99/pack, \$36.00/box

메주콩, 검정콩 \$29.99/5LB

배즙, 포도즙, 대추즙 \$29.99/25packs

마른대추 \$29.99/1bag

고춧가루 \$69.99/3.8LB

신신마트) 978.686.0813 (매장)
781.308.2073 (줄리 안), 781.308.2072 (다니엘 안)

케이타링 문의
한식, 일식, 중식 케이타링 (보스톤 4성급 호텔에 납품하는 허가된 등록업체입니다)
문의 781.308.2073 (줄리 안)



뉴욕 시장 선거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앤드루 양

눈 작고 찢어진 앤드루양...인종차별 논란 시사만평 눈 크기 수정

타블로이드지 만평에 인종차별 혐의 목소리 확산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 뉴욕시장에 도전하는 아시아계 정치인 앤드루 양의 외모를 비하한 시사만평이 논란이 되고 있다.

NBC 방송 등 현지 언론은 27일(현지시간) 미국의 타블로이드지 뉴욕 데일리뉴스가 지난 25일자에 게재한 만평을 둘러싸고 인종차별에 혐의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평에는 맨해튼 타임스퀘어 지하철역에서 두 팔을 활짝 들고 뛰어나오는 앤드루 양의 눈이 감긴 것과 마찬가지로 과장되게 묘사됐다.

또한 만평에는 타임스퀘어에서 선물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앤드루 양을 보면서 "관광객이 돌아왔다"고 반기는 모습도 담겼다.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앤드루 양이 아시아계 외모를 이유로 관광

객 취급을 당한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 장면이다.

이에 대해 독자들은 데일리뉴스의 만평이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를 부추긴다면서 불쾌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앤드루 양도 성명을 내고 "나를 향해 '진짜 뉴욕 주민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시아계 이민자들에게 미국 사회에 소속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따졌다.

논란이 커지자 데일리메일은 지면에 실린 만평에선 앤드루 양의 눈을 좀 더 크게 보이도록 수정했다.

그러나 데일리메일은 만평이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만평이 게재되는 논평란을 담당하는 조시 그린먼 에디터는 "뉴욕시장 선거에서 선두를 달리는 앤드루

양이 정작 뉴욕의 정치와 정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다룬 것"이라고 옹호했다.

최근 앤드루 양이 인터뷰에서 타임스퀘어 지하철역을 좋아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정작 뉴욕 시민들은 관광객이 붐비는 타임스퀘어 지하철역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한편 뉴욕시장 선거를 앞둔 여론조사에선 앤드루 양의 독주체제가 끝나고 3파전 양상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의 민주당원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닷새간 실시된 여론조사에선 에릭 애덤스 브루클린 구청장이 18%로 선두로 올라섰고, 앤드루 양은 13%를 기록했다.

W여성 후보인 캐슬린 가르시아는 11%로 3위에 올랐다.

koman@yna.co.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제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레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형제 떡집

모든 종류 떡 주문 가능!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접종자에 마스크 규제 풀자 미국인들 백신에 관심 높아져

CDC 마스크 완화지침 나온뒤 백신 접종소 안내사이트 방문자 급증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은 대부분의 실내의 환경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보건 당국의 지침이 나온 뒤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CNN 방송은 우편번호를 이용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소를 안내하는 사이트 '백신스거버'(vaccines.gov)의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보건 당국이 이런 지침을 내놓은 뒤 이 사이트 방문자가 급증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이트는 미 보건복지부(HHS)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이 지난달 30일 개설했다. 통상적으로 이 사이트의 방문자는 오전 내내 증가하다가 정오 무렵부터 줄어들었다.

로셀 월렌스키 CDC 국장이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대부분의 실내외 환경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발표한 지난 13일에도 방문자 수는 이런 양상을 따라갔다. 그러다가 월렌스키 국장의 발표가 나온 오후 2시 17분 이후 방문자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오늘은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오랜 전투에서 미국에 위대한 날"이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인 오후 4시께 정점을 찍었다. 순간 방문자가 4만명을 조금 넘기며 개설 뒤 두 번째로 많은 방문자 수를 기록한 것이다. 이 사이트를 가동하는 백신과 인더의 공동 설립자 존 브라운스틴은 "그처럼 또렷한 관심의 증가를 보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하루 이 사이트의 방문자는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고조된 관심은 약 1주일간 지속되며 주간 방문자 수가 197만2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마스크 지침이 업데이트되기 전인 그전주의 방문자 160만4천여명을 앞지르는 것이다. 브라운스틴은 월렌스키 국장과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직후 방문자가 급증했다는 사실은 "규제 완화가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들의 결심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13일에는 또 실제 백신 접종 건수도 거의 한달간 하강 곡선을 그린 뒤 상승했다. 다만 이때는 화이자 백신이 12~15세 청소년을 상대로 긴급 사용 승인이 난 직후여서 이런 증가가 마스크 규제의 완화 때문만이라고 보긴 힘들다.

계속되는 인프라 법안 줄다리기...미 공화, 1천조원 규모 역제안

바이든이 수정제시한 1천900조원에 한참 못미쳐...증세 둘러싼 갈등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인프라 법안에 반대해온 공화당이 1천조원 규모의 역제안을 내놨다. CNN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인프라 법안 협상을 벌여온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27일(현지시간) 9천280억 달러(한화 1천조원) 규모의 역제안을 했다. 1조 달러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애초 2조2천500억 달러(2천500조원)에서 최근 1조7천억 달러(1천900조원)로 규모를 줄인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과 여전히 차이가 크다. 공화당이 내놓은 제안에는 도로와 교량 등 주요 프로젝트에 5천60억 달러, 대중교통 시스템에 980억 달러, 초고속 통신망에 650억 달러, 공항에 560억 달러, 철도에 460억 달러 등이 배정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 협상할 의지는 있지만 대폭 감축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증세로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서도 공화당은 '레드라인'이라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

오 클리블랜드의 한 대학을 찾아 경제를 주제로 한 연설을 하고 인프라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대학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3월 유세를 하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격 취소했던 곳이다. 1년 넘게 코로나19로 신음하던 미국이 백신 접종 확대로 정상화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를 택해 경제 재건 및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것이다. 마이크 도널던 백악관 선임고문은 측근들에게 보낸 문건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문건에서 "공화당이 한참 뒤쳐진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를 재건하려는 대통령의 계획을 비판하는 건 유권자들의 수십 년 된 요구를 비판하는 것"이라며 "그들이 부자가 세금의 몫을 부담하게 하는 대통령의 계획을 공격하는 건 미국 국민의 공정에 대한 기본적 감각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nari@yna.co.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H MART MEMORIAL DAY BACKYARD BBQ SALE!

MEMORIAL DAY 연휴, 알차고 실속있는 다양한 바베큐 용품을 H 마트에서 판매합니다!

BURLINGTON WEEKLY SALE MAY 28th - JUNE 3rd, 2021

H 마트와 함께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Join the H Mart Social Distancing Campaign, to help slow down the spread of COVID-19 for you and our H Mart family. Keeping 6 feet apart will bring us together again.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ID : @hmart_ma

몸의 거리는 넓히고, 마음의 거리는 좁혀야 할 시간. H 마트 고객분들과 직원분들의 안전을 위해 6피트 안전 거리를 확보해주세요!

- Idaho Potato 아이다호 감자 **\$1.99** / LB
- Stem Tomato 스템 토마토 **\$0.99** / LB
- Packed Garlic 팩마늘 **2\$3** / 5 PCS / PKG.
- Navel Orange 네이블 오렌지 36'S **\$0.99** / EA.
- Seedless Watermelon 씨없는 수박 **\$8.99** / LB
- Oriental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1.99** / LB
- Kabocha 단호박 **\$0.99** / LB
- Washington Fuji Apple 워싱턴 후지사과 PREMIUM QUALITY **\$1.49** / LB
- SOONYEOWON Tofu 수녀원 두부 SILKEN/SOFT/FIRM 14-16 OZ./PKG. **\$1.29**
- ZESPRI SunGold Kiwi 제스프리 선 골드 키위 **\$24.99** / BOX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9.99** / LB
- Fresh Beef Eye Round Chunk 장조림용 생 흥두깨 **\$7.99** / LB
- Fresh Sliced Pork C/T Butt Steak 생 돼지 목살 소금구이 **\$6.99** / LB
- Frozen 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냉동 바베큐용 삼겹살 **\$5.99** / LB
- Boneless Smoked Duck 훈제오리 (반마리) **\$14.99** / HALF / LB
- Marinated Sliced Beef Short Rib 양념 LA갈비 LA STYLE/LB **\$13.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 Frozen Head-on Shrimp 냉동 머리 새우 30-40'S **\$4.99** / LB
- Frozen Head-on Louisiana Shrimp 냉동 루이지애나 자연산 왕새우 10-15'S/LB **\$6.99**
- CNV Frozen Scallops on the Halfshell CNV 냉동 스칼럽 13 OZ. /PKG. **\$9.99**
- TONGTONGBAY Frozen Salted Mackerel Fillet 통통배 냉동 The 맛있는 고등어 13 OZ./PKG. **\$5.99**
- Frozen Norwegian Mackerel 냉동 노르웨이 고등어 **\$1.99** / LB
- Fresh Salmon Steak 생 연어 스테이크 **\$6.99** / LB

SMART CARD MEMBER ONLY

-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쌀 15 LB **\$12.99**
- DONGWON Shrimp Cutlet 동원 통살새우가스 16.93 OZ. **\$4.99**
- HAI O Canned Mackerel Pike 해오름 콩치 통조림 1.41 OZ. **2\$5** / CANS/FOR
- CJ Cooked White Rice CJ 햇반 7.4 OZ. X 12 BOWLS/BOX **\$12.99**

- RAW NATURE Brown Rice 자연담은 현미 15 LB **\$10.99**
- THREE CRAB Fish Sauce (Việt Hương) 삼계 순멸치 액젓 24 FL.OZ. **\$4.99**
- HAI O Hot Pepper Paste with Vinegar 해오름 초고추장 17.63 FL.OZ. **\$2.99**
- KADOYA Pure Sesame Oil 가도야 참기름(캔) 56 FL.OZ. **\$14.99**
- HAI OREUM Korean Style Beef BBQ Sauce 해오름 소갈비/불고기 양념 KALBI/BULGOGI 2.11 LB **\$4.99**
- CHUNGJUNGONE Sunchang Doenjang(Soy Bean Paste) 청정원 순창 재래식 생된장 6.17 LB **\$6.99**
- HOUSE FOODS Vermont Curry 하우스 벌몬트 카레 MILD/MED. HOT/HOT/8.11 OZ. **2\$5** / EA./FOR
- DONGWON Canned Luncheon Meat 동원 런천미트 12 OZ. **\$2.99**
- CHOUNG SOO Mul Naengmyeon 청수 물냉면 ORIENTAL STYLE NOODLE/25.4 OZ. **\$3.99**
- CHORIP DONG Assorted Fried Fish Ball 초립동이 순생선살 종합어묵 1.1 LB **\$2.99**
- HAITAI Matdongsan Snack 해태 맛동산 10.58 OZ. **\$2.99**
- I WANT 100% Natural Spring Water 아이원트 스프링 워터 16.9 FL.OZ. X 24 BTLS /PKG. **\$2.99**
- KOTO Teapot Set 코트 4인 환줄무늬 다기세트 POT - 650 mL/CUPS - 140 mL X 4 CUPS **\$14.99**
- JVR Stainless Steel Food Container JVR 스텐 밀폐용기(직사각) 220 MM X 157 MM X 63 MM/EA. **\$10.49**
- HELLO HOME Stainless Steel Strainer 헬로홈 스텐 싱크대 거치용 사각 채망 **\$5.99**

JINGA SIDE DISHES
Want authentic Korean? Always ready to eat! Always the highest quality!

한국전통의 맛이 그리울 때는 진가 모듬반찬을 드셔보세요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사장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부사장 애나 정
617.780.1675
Boston Branch Manager
anna@bostonpremierrealty.com



이사 이제봉
781.654.5281
South Shore Branch Manager
jeblee@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OUR AGENTS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오성빈
978.505.3736
osb@bostonpremierrealty.com



Nikkie Park
617.447.0591
nikkiepark@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Rick Shin
781.530.0034
ricks@bostonpremierrealty.com



최은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김원태
617.620.8242
otk212@gmail.com



재키형
617.795.6171
jackie@bostonpremierrealty.com



Kathy Eunsuk Song
413.313.4165
kathysong2019@gmail.com



주희정
617.831.6999
jessie@bostonpremierrealty.com



주승원
617.780.7839
peter@bostonpremierrealty.com



최승진
978.866.3248
gina@bostonpremierrealty.com



**렌트전문
팀장 제이크 김**
781.956.0409
drjakem@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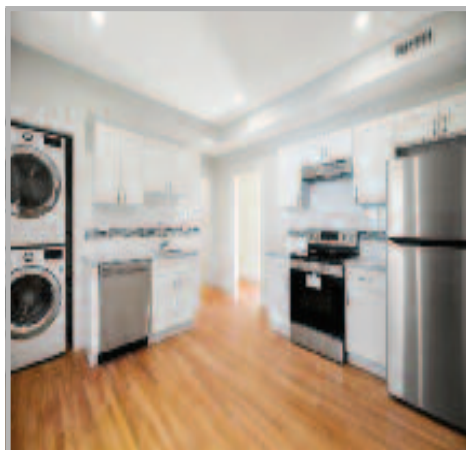
황수진
617.538.6973
sujinhwang1@gmail.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FEATURED LISTINGS



● 2 베드 아파트 렌트

자마이카 플렌
롱우드 1.3 마일
그린라인, 오렌지 라인
홀 푸드 0.2 마일
파킹 1

Asking 월 \$2,900(렌트)



● 커머셜 빌딩

보스톤 북쪽 시티에 위치,
메인스트리트 선상,
주요 체인점들 주변,
5 Units 리테일 스토어
식당, 세탁소, 이발소 테넨트

Asking \$8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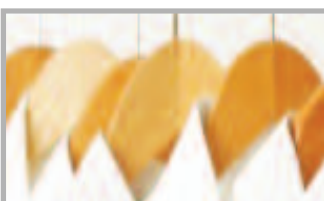
LISTINGS



● 세탁소 건물 + 비지니스

현재 성업중인 Full Plant 세탁소 건물, Watertown 재개발 상권(호텔, 콘도, 쇼핑몰, 콘도, 연구실...)과 레지덴셜이 맞물린 위치, 파킹 5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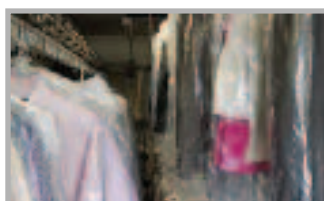
Asking \$999,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남쪽에 위치(Norwell) 성업중인 Drycleaner 드롭 오프 & 얼트레이션 오랜기간 운영으로 꾸준한 단골이 많음

Asking \$53,000



● 세탁소 매매

안정적인 매상, 두터운 고객층, 보스톤 북부에 위치한 Full Plant 년매상 \$250,000

Asking \$189,000



● 식당매매

높은 매상으로 수익보장, 팀워크는 직원들로 구성 식당 무경험자도 쉽게 운영가능 K-food 인기로 향후 매출증가 기대

Asking \$280,000



● 네일샵 매매

T 스테이션에 가까운 위치, 연매상 80만불이상 철저한 고객관리로 안정된 인력, 전용주차장

Asking \$380,000



● 세탁소 매매

Full Plant, 보스톤 북동쪽 타운 확보된 단골고객들 리뷰&매상 좋은 세탁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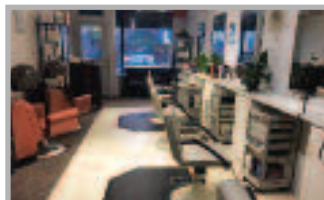
Asking \$200,000



● 세탁소 매매

보스톤 북쪽 타운, Full Plant 확보된 안정된 고객층

Asking \$120,000



● Lexington Hair Salon

Lexington 사업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헤어사롱, 26년 주인이 직접 운영해서 단골 손님이 많음.

Price Reduced
급매 Asking \$40,000



● Westford Nail salon

단골 손님이 많고 매상이 계속오르는 네일사롱 Manicure 6, Pedicure 6

Asking \$170,000



● 세탁소 매매

교통 좋은 위치, 보스톤 북쪽 30분 거리 Full Plant + 새 프레스 기계

급매 원함 Asking 문의 바람



● 네일샵 매매

높은 매상과 안정된 고객층 고급스런 인테리어 최상의 비즈니스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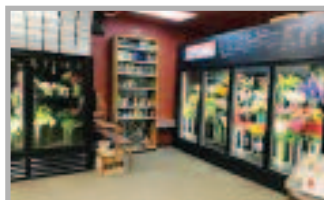
Asking \$320,000



● 드라이클리닝 세탁소 드랍스토어

보스톤에서 30분거리 Haverhill 손쉬운 운영, 저렴한 렌트비 문의바람 978-494-2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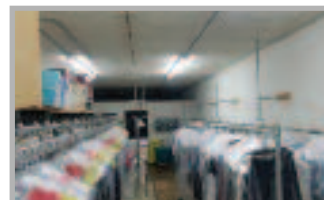
급매 Asking \$30,000



● Waltham Flower shop

오너가 20년을 운영, Main St 에 위치, 꾸준하게 잘 되는 비즈니스, 단골 손님을 많이 확보

Asking \$100,000



● 드랍오프 세탁소

30년간 성업중인 드랍 오프 세탁소 매매, 안정된 고객과 수익, 주인 은퇴, 좋은 위치, Marblehead, MA 1700 SF.

Asking \$50,000



● 미용실(hair Salon)

잘 꾸며진 성업중인 미용실 매매, 1200 SF, 안정된 고객과 수익, Lexington Lots of parking

Price Reduced
Asking \$80,000

보스톤 전망대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발해 건국 1

서기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 당했다. 당나라는 고구려 유민 2만 8천여 가구와 말갈의 유민들을 당나라의 요서 영주 지방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다. 이들 중에는 고구려 무관이었던 곁걸중상과 그의 아들 대조영, 그리고 말갈족 추장 곁사비우가 끼어 있었다.

당시 영주는 당나라가 동북지방의 이민족들을 제어하기 위한 전진 기지로 운영하고 있었던 전략도시였다. 이곳에는 고구려와 말갈들의 유민들이 있었고, 이 지역의 원주민 거란과 해족들이 열악한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제라도 민심이 폭발할지 모를 상황이었다.

결국은 영주에서 민란이 터져 버렸다. 그 이유는 기근이 들어 굶주림에 지친 거란의 족장 이진충과 손만영이 백성 구제를 요청했지만 영주도독 조화는 멸시와 폭정을 계속하자 영주에서 민란이 발생했다. 696년 5월 급기야 거란의 추장 이진충이 영주도독 조화를 처단하였다.

당나라는 많은 장수들을 보내어 토벌했지만 반란군의 기세가 강성하여 이를 꺾지 못하고 결국은 돌궐의 카파간 카간에게 도움을 받아 1년만에 이진충을 제거할 수 있었다.

반면에 영주 일대의 혼란을 틈타 곁걸중상 장군과 말갈추장 곁사비우는 유민들을 이끌고 영주를 탈출해 요동을 향해 동쪽으로 계속 도주하였다. 이진충의 반란으로 영주에서 감시를 받던 고구려, 말갈의 유민들은 당나라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다.

당시 당나라 황제 측천무후는 이진충 반란의 여파로 고구려, 말갈 유민들이 자유롭게 풀려나고 요동의 안동도호부가 예전처럼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새로운 시도를 계획하였다.

당나라는 먼저 고구려 보장왕의 손자 고보원을 요동지역의 충성국왕으로 책봉한 다음에 그 휘하에 곁걸중상을 진국공으로, 말갈의 곁사비우 추장에게는 허국공이라는 작위를 내린다.

이것은 요동지역에 허수아비 괴뢰 정권을 세워 당나라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는 속셈이었다. 곁걸중상이나 곁사비우 두사람은 당나라의 지배에 다시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당왕조의 국공은 황제를 이은 세번째 등급으로 신하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작위였다. 이는 대조영 집단이 요동에서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음을 의미한다. 이들은 당나라 측천무후의 제안을 강하게 거부하였다. 그러자 당나라는 항복한 거란의 장수 이해고를 토벌군 장수로 삼아 공격해 왔다. 당군의 공격을 받은 곁사비우가 전사했고, 곁걸중상 역시 신병으로 사망하였다. - 신당서.

그러자 곁걸중상, 곁사비우의 뒤를 이어 유민들을 이끌게 된 대조영은 말갈족을 다시

규합한 뒤 당나라군을 피해 일단 동쪽으로 후퇴하였다 - 신당서 북적열전.

이에 기세를 탄 이해고의 당나라군은 도망치는 대조영군을 계속 추격하던 중 천문령이라는 요새를 넘게 된다. 천문령이 어디인가 하는 점은 여러가지 견해가 있으나, 현재 요하동쪽의 훈화와 휘발하의 분수령인 길림합달령에 해당되는 곳으로 보고 있다. 이곳은 후일에 발해에서 거란으로 가는 영주도(營州道) 길목이었다.

천문령 전투에 대해서는 불행하게도 일절 기록된 바가 없다. "이해고가 겨우 탈출해서 영주로 돌아왔다"고 구당서에 기록되었을 뿐이다. 대조영에게 맞서 싸웠던 이해고는 원래 거란의 장수로 거란의 족장 이진충의 양자였다. 이해고는 696년에 이진충과 함께 영주에서 거란족의 반란을 주도했는데 697년 이진충이 죽자 당나라 측천무후에게 항복하였다. 처음에는 그를 죽이려고 했으나 재상적인걸이 측천무후를 설득해 휘하 장수로 삼았다.

천문령 싸움에서는 그가 비록 참패를 당했지만 그 이후에는 당나라의 무장으로 좋은 역할을 보여주었다. 나중에는 측천무후의 신임을 받아 무씨성을 하사받고 700~705년까지 무해고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705년에 당중종이 복위되어 국호가 무씨가 아닌 당나라성씨인 이씨로 회복되자 무씨성을 버렸다.

천문령 전투는 12만명의 당나라, 거란 연합군을 꺾어낸 고구려(발해), 말갈 연합군이 물리친 자랑스러운 전투였다. 대조영은 천문령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발해 건국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하지만 당나라의 위협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다. 측천무후는 잡은 그대로 놓아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또다시 군사를 보내 대조영군을 토벌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요서 지방의 거란과 해족이 돌궐에게 항복하여 요서가 돌궐의 땅이 된 것이다. 당나라는 돌궐을 통하지 않고 발해를 침공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으로 발해는 자유로운 나라가 된 것이다.

이에 대조영은 698년 길림성 돈화현 부근에 위치한 읍루의 동모산 성산자 산성에 도읍을 정했다. 이곳은 고구려의 옛땅으로 계부루라고 부르는 말 그대로의 고구려 옛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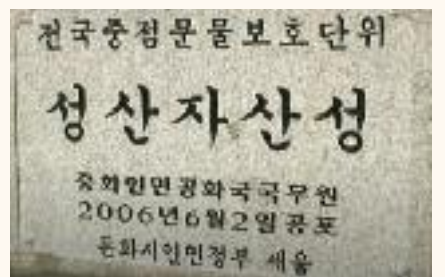
대조영이 698년에 세운 국호는 여러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구당서와 책부원구에서는 떨칠 진 진국(振國)으로 되어 있고, 신당서, 삼국유사, 통전에서는 진동할 진 진국(震國)으로 되어 있다. 또 대조영은 사서에서는 고려별종, 속말말갈, 고려구장(옛 장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가지를 모두 합친 것이 대조영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조영은 혈



대조영군이 천문령에서 당나라 이해고군을 전멸시키고 발해를 건국했다



거란이 돌궐에게 항복하여 당나라가 발해로 가는 길이 차단되었다



동모산에 성산자산을 세워 수도를 삼았다



한민족의 공통점 치우 천황

통은 말갈인이나, 그 선대에 이미 고구려로 들어와 고구려 멸망전에 이미 고구려화된 말갈계 고구려인으로 보는 것이 그의 정체성에 가까운 정의라고 할 수 있다.

713년에 발해로 국명을 변경하였는데 별칭으로 북국(北國), 발해말갈, 북적(北狄), 해동성국, 모슈구르(거란말로 큰나라) 등이 있다.

측천무후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 서기 698년 천문령에서 대조영군이 승전한 사실은 이미 말한바 있지만 같은해 698년에 소라한산에서 3-5만의 토번군과 30만명의 당나라 정예군이 격돌했는데 공방이 가열해지고 지구전화되자 측천무후는 당군 10만을 추가로 보강하였다.

이 전쟁은 698년 7월에서 699년 1월까지 무려 80여회의 교전을 벌였고 마침내 699년 3월 4일에 가르칭링이 매복, 화공, 암포 전술이 복합된 토번군의 분전으로 마침내 승리하였다. 당군의 전사자만 15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가르칭링은 평생 84회의 전투를 하였는데 모두 전승하였다. 658년 어린 시절 토욕혼을 정벌할때 백제를 정복한 소정방군을 물리친 전공을 세웠고, 당나라 고정때는 대비천 전투(정해성)에서 당나라 제일의 장수 설인귀를 포위 공격해서 5만의 당군을 살해하고 3만을 부상을 입히거나 생포했는데 설인귀를 포함한 모든 장수들이 생포되었다고 한다.



간편하고 신속한 주택 융자

안녕하세요, 켈리 김입니다. 개인주택을 꿈꾸는 모든 분들은 자신의 여러 상황 때문에 개인주택 소유의 꿈을 접기도 합니다. 20년간 겪어온 많은 모기지 대출 경험으로 완벽한 대출매칭을 설계해 드립니다.

현금 인출	모기지 재 융자	후회없는 최상의 결과로 만족시켜 드립니다.
낮은 이자율	사전 승인	

상담 및 신속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연락주세요.

617.733.5014

Testimonial

3월 10일 클로징을 하고 4월 1일 입주를 마쳤습니다. 위치는 벌링턴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벌링턴을 선호했습니다. 재산세가 다른 시와 비교해서 싼고, H마켓과 가까운 곳을 찾다보니 벌링턴이 적합했습니다. 저는 집을 사려고 2년 전부터 wells Fargo 은행에 loan pre approve를 받아 놓고 크레딧 점수도 줄곧 관리해 왔습니다. 실제로 홈 쇼핑을 하다보니 56만불로는 집을 사기가 참 애매했습니다. 56만불이 제가 웰스화고 은행에서 융자 승인받은 금액입니다. 벌링턴에 집값이 평균 60만불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 저의 부동산 에이전트, 니키 박의 소개로 켈리 김을 소개 받았습니다. 웰스 화고 은행의 론 담당자와는 확연히 틀린 적극적인 서비스를 경험했고 론도 20만불 더 허락 받았습니다. 그래서 홈 쇼핑하는데 더욱 수월 했습니다. 3월 10일 이자율 2.625에 클로즈 하고나니 곧 이자율이 3 프로로 오르더군요. 모든 융자서류는 이메일로 주고 받고 직접 만날 일은 없었습니다. 한가지 켈리 김 론 담당자의 특징은 고객이 하는 말에 잘 공감해 줍니다. 고객의 입장을 여러번 설명해도 매번 다른 말하는 에이전트는 정말 짜증나게 하는데 켈리씨는 참 공감을 잘 해주는 분이었습니다. 융자성공률도 아주 높습니다. 융자가 필요한 한국사람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만 고집하지 않았고 저의 입장에서 은행에 있는 자금관리며 융자승인 전까지 켈리 김의 가이드에 따른다면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것입니다. 저도 좋은 결과를 얻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Kellie & Nikkie 함께 일을 해 보시면 이 두팀의 시너지 효과를 이해 하실겁니다



Nikkie Park 니키 박
Boston Premier Realty
Phone 617.447.0591

니키 박이 저의 에이전트였습니다. 니키씨는 유학생 시절부터 30년 이상의 오랜기간 동안 보스톤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도시마다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 특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개발이나 인베스트먼트 분야쪽 일을 주로 하셔서 많은 지역들의 인맥이나 지역정보에 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령 어느 회사가 어떤 규모로 들어온다던가 어디에 어느 건물이 지어진다던가, 학교가 재건축을 한다 등등. 저는 니키 박 한 사람을 통해서 짧은 기간에 지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평균 거래가격은 제가 집을 고르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바이어의 에이전트로서 바이어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거래를 성사시켜준 덕에 저희는 마켓에서의 거래가격(현 마켓은 희망 거래가격보다 7%-15% 이상 으로 거래 되고 있습니다) 보다 조금은 낮은 금액으로 계약인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에이전트라 생각합니다 온전이 저희 쪽에서 열심히 일을 해 주셨고 저는 모든 사람과 이런 좋은정보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켈리 김 Licensed in MA, NH, RI, FL, NJ
Kellie Kim Thielen

주택대출 전문가
nmls #2027241
617.733.5014
kkimthielen@radiusgrp.com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 식당 온라인 오더와 온라인 페이먼트를 한자리에서 해결
- 헤어와 네일 살롱의 온라인 예약과 온라인 페이먼트를 컴퓨터로
- 다양한 옵션을 완비한 디펜더블 컴퓨터로 간단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식당	살롱
온라인 음식 주문과 지불 epipay™	온라인 예약 관리 epiday™
온라인 매장 관리	온라인 매장 관리
고객 관리	고객 관리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GIFT CARD 프로그램	GIFT CARD 프로그램
종업원 관리	종업원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Dependable Computer is an authorized independent reseller of United POS Solutions, Inc."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thony (Dubleu) Parish of Korean Christ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미사
월요일: 아침 6시
화-금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11시

Contact: stadparish@gmail.com 617-558-2711

45 Ash St, Newton MA 02458 / 617-668-2711
stadparish@gmail.com / stadparishchurch.org
www.facebook.com/stadparish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HANN 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총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M.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중 대한예수교장로회 피루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원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sfirst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6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3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교회: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골프 레슨

US GTF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최성조 프로
Master Golf Professional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자신을 보호하면, 타인도 보호합니다.

나 자신과 주위 사람을 보호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6피트 거리를 유지하며, 차례가 되면 백신을 접종받으십시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더 쉽게 퍼지고 있습니다. COVID 확산을 늦추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동안, 필요하신 물품을 최대한 안전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cdc.gov/coronavirus 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합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문대통령, 김기현 제지한 이유... "美대통령 비난에 동조못하잖나"

'대통령이 팔 툭툭 쳤다' 金 인터뷰에 이철희 반박... "웃으며 툭 건드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외국정상, 그것도 세계 '넘버 원'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을 속된 말로 까는데(비판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동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27일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열린 정당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제지한 일이 화제가 됐다.

이날 언론 인터뷰에 나선 김 대표 대행은 당시 자신이 "바이든(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원래 상대방을 띄워놓고 뒤로 빼간다"는 언급을 하자, 문 대통령이 멧쩍은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팔을 '툭툭' 쳤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를 '그만하시죠'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CBS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 나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대표 대행의 발언에 문 대통령이 난처해 하더라"라며 "제1야당 대표의 얘기를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 대통령 비판에 동조할 수도 없지 않나"라며 "그래서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다가 가볍게 (팔을) 툭 건드리며 '이제 그만하시죠'라는 제스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익을 챙기는 거야 저희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다 (미국과) 마찬가지로"라고 김 대표 대행에게 슬쩍 귀띔했다는 것이 이 수석의 설명이다.

이 수석은 "마무리가 잘 됐는데 김 대표 대행이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로서는 굉장히 섭섭했다. 대통령과 야당의 대화가 참 어렵다고 느꼈다"고 부연했다.

사회자가 '툭툭 친 것은 사실이라는 거냐'고 묻자, 이 수석은 "툭툭 친 것이 아니다. 우호적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웃으며 툭 건드린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수석은 문 대통령과 국민의힘 대표와의 1대1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를 쏟아내듯 하면 다음 자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안 되지 않나"라고 했다.

한편 이 수석은 당청 사이에 정책적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에는 "성급하게 조율하지 않으려 한다. 절충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면서도 "당청은 국정운영의 쌍두마차"라고 강조했다.

측근 인사는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며 "중도는 철저히 실용이다. 좌우 무관하게 효능감 있는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dk@yna.co.kr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의 발언을 듣고 있다.

문대통령, 김오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임명 수순'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류미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지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재송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가 제출 시한인 26일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이



김오수 검찰총장 내정자

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두고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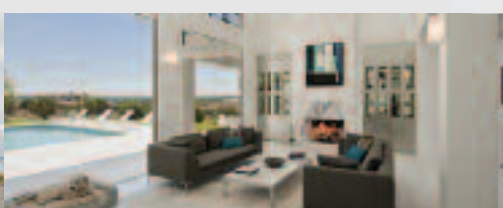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The Pro Realty Group과 함께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비전과 열정있는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보스톤 최고 부동산 회사 The Pro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는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Cell: 339.224.1512

Kakao ID: susan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245 First Street Riverview II 18th floor
Cambridge, MA 02142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635) 예일대학 투자 책임자의 교훈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예일(Yale)대학의 기부금(Endowment)을 운영하던 최고 투자 책임자, 데이비드 스웬슨(David Swensen)이 5월 초 사망했다. 일반 투자자에게 익숙한 사람은 아니지만, 필자에게 오랫동안 투자하는데 멘토(Mentor)로 생각했던 분이다. 스웬슨이 투자 책임자로 1985년 부임한 후 기부금 1 billion을 2020년에 31.2 billion으로 증가시켰다. 이런 이유로 뱅가드의 창업자 잭 보글이 인덱스 펀드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면 데이비드 스웬슨은 기관투자(Institutional Investment)에 커다란 투자 지표를 제시했다고 말한다.

‘주식 종목과 투자 시점’을 일반 투자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투자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제대로 형성된 자산분배(Asset Allocation)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스웬슨 책임자의 한 특별 강연(https://www.youtube.com/watch?v=wRdx7kVNQ_E)에서 주식투자의 수익 90% 이상은 종목이나 시점이 아니라 자산분배라고 언급한 것이다. 이 강연은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기관투자를 대상으로 한 말이다.

기관투자를 운용하는 전문가는 풍부한 투자 경험과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막대한 자금을 운용한다. 이런 기관투자자에게 투자 종목 선택이 투자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소위 전문가도 유망한 주식 선택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는 유망한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고자 한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코로나 이후 테슬라 주식에 열광이었다. 테슬라 주식만이 아니라 전기차에 관련된 주식 대부분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1900년대 2000여 개의 자동차 회사가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었지만, 거의 전부 사라졌다. 1989년에 지구상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20개 회사도 현재 모두 사라졌다. 이처럼 기업의 흥망성쇠를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주식투자를 도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장기투자해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고 이런 투자 방법론은 노후대책을 기대할 수도 없다.

아크(Ark Invest) 펀드도 코로나 이후 \$3.5 billion에서 \$50 billion으로 급성장했다. 이처럼 누가 무슨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하

면 너도나도 같은 종목에 투자한다. 그러나 현재 35% 대폭락을 경험하고 있다. 같은 시점 주식시장은 4% 상승했다. 일반 투자자 대부분은 이처럼 이미 알려진 종목에 투자한다. 투자가 뒷북만 치기에 좋은 투자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대박을 기대하며 투자종목을 선택한 투자는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지기 쉽다. 전문가도 하기 어려운 주식 선택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다.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기분이 오락가락한다. 제대로 하는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본인의 나이, 자산 규모, 위험 부담률, 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서 투자해야 한다.

포트폴리오 구성에 참고해야 하는 학설이 있다. '모던 포트폴리오 이론(Modern Portfolio Theory)'이며 줄여서 MPT라고 한다. 이 이론은 투자할 때 수익(Return)은 최대한화하면서 위험(Risk)은 최소화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달 같을 같은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불문율을 이론적으로 검증하여 1990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경제학자 해리 마코위츠의 개념이다.

위의 개념을 이용해서 투자해야 한다. 주식에 60%와 채권에 40% 자산 분배를 형성했다고 가정하면 1920년부터 평균 수익률이 8%가 된다. 8%라는 수익률은 9년마다 2배가 된다. 50만 불 투자가 100만 불로 불어나는 높은 수익률이다. 자산 분배한 이유는 수익률은 100% 주식투자보다 조금 감소하지만, 투자 위험성은 거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멘토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하나씩 하늘나라로 간다. 그만큼 필자도 나이 먹어간다는 뜻이다. 제대로 하는 투자로 아이들 학자금이나 노후대책을 어떻게 투자하는지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설명해 오고 있다. 그러나 투자 대박에 관심 있는 일반 투자자에게 흥분(Exciting)되는 내용은 아니다.

우리 대부분은 말도 통하지 않는 미국에 이민 와서 온갖 고생 하며 한 푼 한 푼 번다. 이렇게 소중한 돈을 투자 대박을 기대하며 혹은 원금 보장하며 수익이 난다는 금융상품 등에 투자한다. 제대로 투자하면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높은 수익을 누구나 받을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20세 풍월주風月主 예원공禮元公(11)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라에서 금천 씨를 조상으로 삼는다고 한 때 문일 것이다. 공이 말하기를 “금천 씨가 어떻게 신이 되겠는가?” 했다. 유향이 답을 할 수 없었다.]

삼국사기(열전 김유신)에 보면, <신라인들은 스스로 “소호 금천씨少昊金天氏의 후예이므로 성을 김금으로 한다”고 하였고, 김유신의 비문에 또한 “헌원軒轅의 후예요, 소호少昊의 자손이다.” 라고 하였으니, 곧 남가야南加耶의 시조 김수로왕은 신라와 더불어 같은 성씨이다) 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같은 삼국사기, 백제본기(의자왕)에도,

<신라 고사古事에는 “하늘에서 황금계짜이 내려왔으므로 성을 김씨金氏로 삼았다”고 하는데 그 말이 괴이하여 믿을 수 없으나 내가 역사를 편찬함에 있어서 이 말이 전해 내려온지 오래되니 부득이하게 이를 없앨 수가 없었다. 그리고 또한 듣는데, 신라 사람들은 스스로 소호금천씨少昊金天氏의 후손이라 하여 김씨金氏로 성으로 삼았고(신라 국자박사國子博士 설인선薛因宣이 지은 김유신의 비문과 박거물朴居勿이 지었고 요극일姚克一이 쓴 삼랑사비문三郎寺碑文에 보인

다), ...하락...)

이어지는 내용은 고구려가 고씨로 성을 삼은 내력과 백제와 고구려가 모두 부여에서 나왔다는 기록이 적혀있다.

삼국사기에서 보듯 경주 김씨와 김해 김씨는 소호금천씨의 후손이다.

그럼 소호금천씨는 누구인가? 소호금천씨는 중국 고대의 신화상(중국인들은 삼황오제 8명을 역사속의 실존인물이라고 주장한다)에 등장하는 삼황오제三皇五帝 중 오제의 한 명이다. 삼황은 사기史記에 등장하는 <천황, 지황, 인황>을 비롯하여 <복희, 여와, 신농> 등 여러 이름으로 다수의 기록에 등장한다.

오제 역시 일치하는 설이 없이 여러 이름으로 다수의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소호금천이 나오는 기록은 황제皇帝의 뒤를 이어 다섯 자손으로 소호 금천, 전욱 고양, 제곡 고신, 제요 도당, 제순 유우로 등장한다. 소호금천은 황제의 아들로 황제를 이어 왕위에 올랐고, 소호의 뒤를 이은 전욱은 소호의 조카(형의 아들)이고, 전욱을 이은 제곡은 소호의 아들이다. 그리고 제요와 제순은 ‘요순堯舜’으로 중국 상고시대의 대표적인 성군으로 일컬어지며, 지금도 태평성대의 의미로 관용구로 표현되고 있다.

화랑세기의 기록으로 보아 김춘추가 당나라로 원병을 청하러 가기 이전에도 많은 신라인들이 중국을 왕래하였고, 신라 김씨들은 그들 스스로를 소호 금천씨의 후손이라고 하였음이 삼국사기와 일치하게 나타난다.

338) 보종은 16세 풍월주로 미실의 막내아들이다(아버지는 7세 풍월주 설화랑이다). 보종은 진평왕의 딸인 양명공주의 유혹으로 여색을 알아 보라와 보랑 두 딸을 낳긴하였지만 그 후로는 양명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신선과 같이 살았다. 그래서 양명공주는 모종(미실의 장남 하종의 아들이다)과 결혼하여 양도(22세 풍월주, 648년 예원과 함께 선화仙花로서 김춘추를 수행하여 당나라에 원병을 하러 갔다)를 낳았다. 그리고 후일 양도는 동모이부인 보랑을 아내로 맞았다.

339) 신라는 골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친혼인을 하였다. 즉 동기同氣가 상합相合한다는 풍습으로 인하여 근친혼을 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화랑세기에 기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사기(사마천),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예원이 648년 김춘추를 수행하여 당나라에 갔을 때 이미 당나라 관리들은 예원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이에 앞서 578년에서 600년까지 중국 여러나라에서 불교를 연구하고 강론도 한 원광법사의 조카이기도 하였지만 예원의 문장이 뛰어났기에 그를 존중하며 토론을 원하였다. 화랑세기에 기록된 그 내용을 보면,

[당나라에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공이 원광의 조카로 문장을 잘한다고 존중했다. 유향柳享이 신선神山的 도에 대하여 물었다. 공은 보종寶宗338) 이 그 도를 능히 얻었다고 답했다. 또한 연서燕書에 대하여 물었는데, 공이 암송하여 주었다. 또 우리나라의 혼인하는 도道에339) 대하여 물으니, 공이 신의 뜻에 따른다고 답했다. “어떤 신이 시조냐”고 묻자, “일광日光의 신이다” 했다. 유향이 말하기를 “일광과 금천씨金天氏가 같은가?” 했다. 대개 전에 왔던 사신이 우리나라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부동산은 거짓말을 안해요” (믿을 말을 믿자)

오늘 아주 어이가 없는 일이 있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타주에서 오신 손님이 2주전에 전화를 주셨다.

“백영주 부동산이죠?” “제가 2주 후에 딸 아이 집을 사 주기 위해서 보스톤에 가는데 예약을 하려고요” 그래서 시간 약속을 했고 오늘 손님이 타주에서 오셨다.

집도 보여 드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다. 원래 본인들이 지금 타주에서 살고 있던 집을 팔고 큰 집으로 옮겨 가시려고 하셨었는데 그 사려더하던 집이 2주 사이에 20만불이 올랐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난 “흠...! 집 가격대가 얼마 인데요?” 바로 물었다.

“처음에는 70만불이었는데 2주후에 90만불이 됐어요! “하시는 것이었다. 난 “설마요?”

그분들은 “그래서 못 샀어요” 하셨다. 2주만에 20만불 더 오버 해서 팔렸다는 말인가 해서 다시 물었다.

긴 대화 끝에 이 단지는 새 단지로 처음에 몇 집을 1차로 먼저 팔고 또다 팔리고 나면 2차로 파는 게 사연이었다.

새로 짓는 집은 같은 사이즈라고 해도 쓰는 자재에 따라 집값이 왔다 갔다 한다.

오늘 이것처럼 부동산은 1+1=2가 아니다. 너무나도 많은 요소가 있기에 복잡하다.

예를 들어 위치, 집의 실용 면적, 지은 연도, 지은 재료, 집에 방향, 동네 등 봐야 하는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또한 어떻게 지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요즘에는 세탁실을 지하에 설치하지 않는다. 또 90년대만 해도 1층에 2000년에는 2층에 현재 짓는 집들을 보면 옷장과 샤워실을 크게 짓는 게 추세다.

이렇게 시기에 따라 짓는 특징이 다 다르다.

난 집을 항상 사람에게 비교한다. 완벽한 사람이 없듯 완벽한 집이 없다.

아무리 마음에 드는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나오기란 아주 어렵다. 아니 불가능하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상식적으로 말이 되어야 한다.

들었을 때 이해가 안 가면 다시 묻고 이해를 해야 한다.

내가 듣는 이야기 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정말 말이 안 되는 말이 많았다.

부동산이란 맞는 상식을 가지고 현실에 맞아야 매매가 가능하다. 내가 항상 하는 말은 “부동산은 거짓말을 안해요”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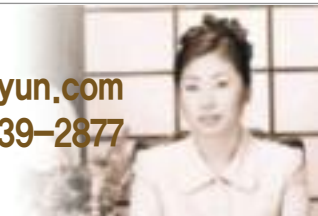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5월 30일 - 6월 5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전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활력과 의욕을 되찾는</p> <p>●운수: 남보다 더 바쁘게 뛰어다녀야 할 때입니다. 직업과 관련하여 좋은 일이 있거나 이동수가 있겠습니다. ●금전: 생활의 활력과 의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안정되면서 금전적으로도 회복이 됩니다. ●애정: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기다리던 사람과의 반가운 재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 5일 길일. 31, 3일 주의.</p>	<p>소띠 미리 낮춰서 바라면</p> <p>●운수: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이에서 찾으세요. 봄을 찾으려고 짐신이 달도록 돌아다녔는데 정작 집 앞 매화가지에 봄이 있는 격입니다. ●금전: 원하는 것을 미리 낮춰서 바라면 큰 실망이 없습니다. 기대치가 크면 허망해지고 답답해집니다. ●애정: 의미도 방향도 잃은 채로 보내기 쉽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방향을 끝내야 할 것입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 5일 길일. 1, 4일 주의.</p>	<p>범띠 더 힘껏 노력해야</p> <p>●운수: 방심하기 쉬운 주입니다. 가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옛말처럼 더 힘껏 노력해야 합니다. ●금전: 당장의 이익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사 안일한 태도는 통하지 않는 때이니 태도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애정: 보편적인 사랑은 상대적입니다. 상대가 몰라주는 홀로 하는 사랑은 좀처럼 대우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결국 지지게 됩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31, 3일 길일. 2, 5일 주의.</p>
<p>토끼띠 한 단계 발전하게</p> <p>●운수: 새로운 시작으로 한 단계 발전하게 됩니다. 너무 넘치거나 지나치지 않으면 매사 순조롭고 무난하게 지나갑니다. ●금전: 예상외의 수입이 따라주고 있습니다. 최상의 시기이니 바쁘지만 보람이 있겠습니다. ●애정: 찬스가 생기거나 생활의 변화가 있습니다. 좋은 결혼 상대를 만날 수 있는 시기이니 적극적으로 주위를 살펴보도록 하세요. 99, 87, 75, 63, 51, 39년생은 30, 4일 길일. 3, 5일 주의.</p>	<p>용띠 큰 고기는 넓은 물에서 살아야</p> <p>●운수: 큰 물고기는 넓은 물에서 살아야 하는 법입니다.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이제는 용기내야 합니다. ●금전: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올 것입니다. 금전운이 좋아서 지금 회전이 잘 되겠습니다. ●애정: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잘 표현해 보세요. 직설적인 표현보다 오히려 이러한 표현이 상대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30, 5일 길일. 1, 4일 주의.</p>	<p>뱀띠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p> <p>●운수: 소낙비가 오락가락 하는 것처럼 마음의 비가 오락가락하니 하루에도 열두 번도 더 마음이 바뀌고 있습니다. ●금전: 당분간은 큰 욕심을 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보낸다는 생각으로 현상유지를 하는데 신경 써야겠습니다. ●애정: 인연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세요. 89, 77, 65, 53, 41, 29년생은 3, 4일 길일. 30, 5일 주의.</p>
<p>말띠 무엇보다도 솔직해야</p> <p>●운수: 무엇보다도 솔직해야 합니다. 언행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 점수를 쌓게 될 것입니다. ●금전: 기대하고 바라던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일의 규모는 더 크게 벌어지지 마세요. ●애정: 양보다는 실, 실보다는 분위기나 느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음모수 잔잔을 마셔도 이왕이면 분위기가 있는 곳으로 가보세요. 90, 78, 66, 54, 42, 30년생은 30, 4일 길일. 31, 1일 주의.</p>	<p>양띠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해지는</p> <p>●운수: 주위의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해지는 시기입니다. 가급적 변화를 자제하고 안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무조건 믿고 따라가면 후회할 일이 생기니 주의해야 합니다. ●애정: 오해를 부르는 일들이 연달아서 생기기 쉬운 때입니다. 스스로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91, 79, 67, 55, 43, 31년생은 31, 3일 길일. 1, 4일 주의.</p>	<p>원숭이띠 지혜롭게 잘 피해야</p> <p>●운수: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거나 피곤하고 짜증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피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 돈 큰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니 마음을 비우고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현상유지에 만족하면서 지나가세요. ●애정: 미안한 생각이 들다가도 너무 몰아치면 미안한 생각이 사라지고 화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나침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92, 80, 68, 56, 44, 32년생은 1, 5일 길일. 30, 2일 주의.</p>
<p>닭띠 해결의 실마리를</p> <p>●운수: 무엇이든지 도전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망설이지 말고 내 의지대로 밀고 나가세요. ●금전: 말이 오고가던 매매나 계약 등의 일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멀리 내다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애정: 자신의 밝은 미소가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게 합니다. 미소가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 5일 길일. 31, 3일 주의.</p>	<p>개띠 손익계산을 철저히 하고</p> <p>●운수: 시작도 하기 전에 미리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사고로는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금전: 곳곳에 손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앞 뒤 손익계산을 철저히 하고 그 누구와도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 더 이상 가게 되면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마음을 정해야 할 때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30, 3일 길일. 1, 4일 주의.</p>	<p>돼지띠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p> <p>●운수: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계획의 차질이 생기고 예기치 않았던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합니다.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나가는 것이 많겠습니다. ●애정: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독이 터지는 것처럼 그동안 억지로 막아두었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31, 4일 길일. 2, 5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스시맨 구합니다.
T. 781-457-8198

프리비던스 R
주방장, 주방헬퍼, 세컨드 요리사 구합니다.
T. 781-439-3838

캠브리지 한국 식당
주방 및 스시하실 분 구합니다.
T. 617-544-7016 (문자 혹은 메세지 남겨주세요)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좋은 조건으로 리틀부산 식당 판매합니다.
렌트 저렴, 좋은 위치, 리커 라이선스
주인 은퇴, 상담 환영합니다.
T. 978-897-5107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헤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어깨 딱 편 마동석...마블 영화 '이터널스' 예고편 공개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미국 마블 스튜디오가 오는 11월 개봉하는 새 히어로 영화 '이터널스' 예고편을 팬들에게 공개했다.

이 영화는 불사의 외계 종족 '이터널스'가 인류를 위협하는 악당 '디비언츠'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한국 영화무대에서 활약해온 미국 교포 출신 배우 마동석(영어 이름 돈리)이 출연했다.

마블은 24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새로운 티저 예고편을 시청하고 올 11월 극장에서 체험해보세요"라며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미국 영화전문매체 버라이어티 등이 보도했다.

2분 분량의 예고편은 팜송 '디엔드 오브 더 월드'를 배경으로 '이터널스' 종족이 수천 년 전 대형 우주선을 타고 초기 인류의 한 부족 앞에 나타나는 장면으로 시작했다.

'이터널스'는 인류 발전을 뒤에서 조용히 도와온 외계 종족으로 묘사됐다.

할리우드 스타 셀마 헤이엑이 연기한 이터널스 지도자 '에이잭'은 "우리는 인류를 지켜보고 안내하며 (인류의) 진보



를 도왔다. 그들이 경이로운 일을 해내는 것을 봤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한번도 (인류에) 간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초인적인 힘을 지닌 무적의 히어로 '길가메시' 역할을 맡은 마동석은 예고편에서 여전사 '테나' 역의 앤젤리나 졸리 옆에 어깨를 당당하게 편 모습으로 등장했다.

마동석은 예고편 마지막 장면에서는 흰 셔츠에 멜빵을 걸친 모습으로 나와 이터널스 동료들과 함께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줬다.

예고편은 마블 특유의 유머도 녹여냈다고 미국 연예잡지 피플은 전했다.

예고편은 '이터널스' 멤버 '스프라이트' 역의 리아 맥휴가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의 주역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이 사라졌는데 "누가 어벤져스를 이끌 것 같냐"고 묻자, '이카리스' 역의 리처드 매든이 "내가 이끌 수 있다"고 농담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됐다.

'이터널스'는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은 중국 출신 여성 영화 감독 클로이 자오가 연출했고 오는 11월 5일 개봉된다.

이지아 · 이동욱 · 김고은, JTBC 새 예능 '바라던 바다' 출연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이지가해주는 요리와 이동욱이 건네는 술이 함께하는 새 예능 프로그램이 등장한다.

JTBC는 새 예능 '바라던 바다'에 윤종신, 이지아, 이동욱, 온유, 김고은, 이수현이 출연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수 자이로와 멜로망스의 정동환도 연주와 노래를 함께 한다.

'바라던 바다'는 바다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라이브 바에서 스타들이 손님들

에게 직접 선곡한 음악과 만든 요리를 선보이는 모습을 그린 예능 프로그램이다.

뛰어난 요리 실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이지아는 '바라던 바다'의 헤드 셰프로, 이동욱은 헤드 바텐더로, 스쿠버다이빙 자격증을 보유한 김고은은 오션가드로 활약할 예정이다.

'비긴어게인' 제작진의 새 예능 프로그램으로도 기대를 모으는 '바라던 바다'는 내달 29일 오후 9시 처음 방송된다.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심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보스톤코리아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뒤뜰의 '텃밭'을 가꾸며...

10여년 만에 처음 지난해 이른 봄 뒤뜰의 '텃밭'을 만들었다. 20년 전쯤에는 가깝게 지내는 지인(이씨 아저씨)이 계셔서 가끔 오셔서 밭을 일궈주시고 도와주시는 바람에 텃밭을 가꾸기도 했다. 그러나 10여년 전 돌아가셔서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서 올 봄에는 텃밭을 꼭 만들어야지 하고 몇 해를 지나다 보니 10년이 훌쩍 넘은 것이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 밭은 밭이 아니라 잡 풀들의 천국이 되었다. 여기저기 바람 따라 날라왔던 풀씨들이 땅에 씨앗을 내려 가끔 이름도 모를 예쁜 들꽃들도 제 모습을 뽐내기도 하는 것이다.

남편은 '텃밭' 이야기가 나오면 50년이 다 된 이야기들을 들춰내며 얼굴을 붉히곤 했다. 텃밭에 대한 기억이 추억이 아닌 생각 하고 싶지 않은 '억울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어려서 아버지가 텃밭을 가꾸시다가 삼 남매(형과 누나)에게 풀을 뽑으라고 시키셨단다. 당신(아버지)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왜 어린아이들에게 풀을 뽑으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던 터라, 텃밭이나 꽃밭을

가꾸는 일에는 남편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내가 혼자서 오래 걸리지만 차근차근히 하는 편이다.

지난봄에는 텃밭을 일구고 싶은 급한 마음에 식품점에 '고추 모종, 깨 모종, 상추 모종'을 사다가 일찍 텃밭에 심었다가 그 다음 날 눈이 내려 채소들이 추운 날씨에 얼어 죽어 다시 사다가 심었다. 아마도 4월 중순 무렵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늦게 모종을 사 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5월 초쯤에 식품점에 가보니 웅기 종기 여러 가지의 모종들이 이름표를 달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래도 더 늦게 모종을 산다면 차례가 오지 않겠다 싶어 미리 사두었다가 좀 늦게 심어야겠다고 생각했다.

4월 중순쯤에 가깝게 지내는 지인(샌디 아주머니)이 우리 집에 오셨다가 뒤뜰의 텃밭을 일궈주셨다. 혼자 하면 지루했을 시간에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밭을 정리해주시니 참으로 고마웠다. 그리고 4월 말에도 아직 날씨가 쌀쌀한 것 같아 미루었다. 우리 집 그라지에서 거의 한 달을 기다

리며 가끔 물을 주고 햇볕을 쏘여주긴 했지만, 땅에 심기울 채소들이 시멘트 바닥 위 상장에 놓여있는 것이 못내 미안했다. 그렇게 갇혀 있던 모종들(고추, 상추, 방울토마토, 깻잎)을 어제저녁에서야 흙을 파내고 땅에 심기 시작했다.

오늘은 이래저래 핑계로 삼아 골프도 쉬고 텃밭에서 하루 온종일을 즐겁게 보내고 있다. 얼마 전부터 내 자동차에 계속 서비스 사인이 나오길래, 어제 어포이먼트를 해줬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자동차를 정비소에 맡기고, 집에 돌아와 꽃밭에 물도 주고 집 앞뜰과 뒤뜰을 둘러보며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큰아들이 늘 골프와 운동 그리고 교회 일로 바쁜 엄마가 하루 온종일 집에 있으니 이상하다는 듯 바라본다. 이른 아침 꽃들에게 물을 주는 일로도 행복했는데 '텃밭'에 채소들 덕분에 행복이 더 늘었다.

흙에서 자라는 채소들을 보라. 세상에 공짜가 없음을 또 깨닫게 한다.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면 훌쩍 자란 고추와 오이들을 상상해보라. 행복은 이미 채소가 자라기 전부터

내 가슴을 설레게 하고 요동치게 한다. 맛이야, 다음이다. 방울토마토가 가지에 주렁주렁 달려서 초록이다가 하룻밤 새 빨갭게 익어 아침 인사를 나눌 때는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물을 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잘 컸구나, 예쁘구나, 이런저런 칭찬을 많이 해주다 보면 늘 내가 더욱더 신바람이 일렁거리 상쾌한 아침을 맞게 되는 것이다.

뜰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은 텃밭이 아니라도 요즘은 화분에 미나리, 방울토마토, 고추, 상추, 파 등 많이들 키운다고 한다.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좋은 공부이기도 하다. 새싹이 자라 나무가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일을 눈으로 매일 확인할 수 있으니 서로 나눌 이야기도 많아지고 재밌는 공부가 되는 것이다. 어디 어린아이들뿐만일까. 어른들에게도 '텃밭'은 생명에 대한 감사와 생명에 대한 존중을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귀한 자리이다. 또한, 창조주에 대한 감사와 피조물인 나를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새참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아마 이즈음일게다. 한국에선 한창 모내기철이다. 모내기는 중노동인데, 나역시 해봐서 안다. 오후 근방이면 다리 힘이 빠지니, 사뭇 주저앉아 모를 꽃아댄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제대로 가누고 지탱할 수 없는 거다. 덩달아 엉덩이는 흥건히 젖는다. 버틸 수 있는 건 오직 밥이고 막걸리 기운이다.

그럴적에 때맞춰 새참이 나온다. 그 맛이 야이름바가 없는 꿀이다. 곧바로 원기회복 되는 거다. 하지만 문제는 막걸리 한잔에 모내기 줄이 빠들거린다. 막걸리를 탓할 수 없고, 새참에는 잘못이 없다.

새참이란 말이 재미있다. 신선하게 들리는데, 사이참의 준말이다. 오전 10경에 한번 그리고 오후 서너시 경에 다시한번 먹는다고도 했다. 하루 도합 다섯번을 먹는 거다. 서너시간마다 먹거나 마시는 셈이다.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다.

구불구불 눈독길을 걸었지
김치부침과 찢감자
그리고 주먹밥
막걸리 한주전자
...
(서윤덕, 새참 중에서)

옛적 논밭과 새참 광경은 풍속화에도 자주 등장한다. 큰 그릇에 수북히 밥이 담겨져 있다. 잠곡밥이었을 텐데, 맛이야 더할 나위 없었을터. 예나 지금이나 한국인은 많이 먹고 많이 마시는 모양이다. 대식大食이요 대음大飲이라 해야겠다. 밥의 힘이라 해야 할까?

새참을 준비하는 아녀자들이야 고생스러웠을터. 수고가 이만저만 아니었을 테니 말이다. 이고지고 날라야 했으니 무슨말이 더 필요하랴. 하지만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도 신명은 낮을 게다. 땀 냄새마저 오히려 달다.

식사할 겨를도 없는 지라 (마가 3:20)

활동이 적어서 그런가. 요즈음은 식욕이 부쩍 줄었다. 듣던 아내가 한마디 한다. 그만 하면 식욕이 줄어 든게 아니다. 때때로 하루 세끼가부 길 적이 있다. 네

다섯 시간 간격으로 밥을 먹어야 하니 말이다. 게다가 틈틈이 간식도 들어 간다. 아아, 먹는 일의 바쁨이여. 먹자고 사는가? 살자고 먹는 것인가?

모내기철
밥 광주리
머리에 이고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불로 변경)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99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YOUTUBE

\$34.99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영화/성인, YOUTUBE

*전상품 1년 약정

\$39.99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노년층 괴롭히는 어지럼증, 2차 사고 막으려면 적극적 치료가 중요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잘못하면 2차 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는 노년층의 어지럼증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박지현 진료부원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어지럼증으로 악화된 균형장애, 낙상 등 2차 사고 이어질 위험 높아

어지럼증은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질병이지만, 그 중에서도 노년층에게서 흔히 발병한다. 65세 이상의 40%와 75세 이상의 50%가 어지럼증을 호소할 정도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노년층은 이를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원인이 없는 어지럼증은 없다. 어지럼증은 낙상과 같은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 치료를 통해 증상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노년층이 겪는 어지럼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우울증, 골절, 낙상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루지 않고 치료를 받는 게 좋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흔히 앓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은 어지럼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나이가 들수록 복용하는 약물의 종류도 많아지는데, 약물로 인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노년층도 증가하는 추세다.

어지럼증은 크게 뇌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중추신경계 질환에 의한 어지럼증과 전정기관의 문제로 발생하는 말초신경계 질환에 의한 어지럼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추신경계 질환에 의한 어지럼증은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게 특징이며 팔다리 마비와 언어 장애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가만히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어지럼증이 심하지 않지만 일어서거나 걸을 때 균형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말초신경계 질환에 의한 어지럼증은 증상이 이명과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메니에르병과 이석증의 대부분이 말초 전정 신경계의 이상으로 발생하는데, 수시간 동안 오심과 구토 이명 등의 증상이 지속된다. 특히 이석증은 전정기관 내에 있는 미세한 돌인 이석이 떨어져 나와 반고리관을 자극하면서 발생하는데, 머리를 움직일 때 빙글빙글 도는 회전성 어지럼증이 나타난다. 주로 60세 이상

에서 이 같은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어지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만약 어지럼증의 원인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거나 치료가 어려운 경우, 약물요법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균형 감각 재활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다. 오랫동안 어지럼증을 앓은 경우 신체의 균형 감각 능력이 매우 약해지는데, 균형 감각 재활 치료는 환자의 균형 감각 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전담 치료사의 도움을 통해 등근 발판 위에서 균형 잡기, 고개를 돌린 채 앞으로 걷기 등의 훈련을 진행하면서 평소 약해진 균형 감각 능력의 회복을 유도한다. 또, 획일화된 치료법이 아닌 환자 개개인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더 높은 치료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휴람 네트워크 세란병원 박부원장은 "노년층은 균형 감각의 저하, 내과적 질환, 뇌질환, 약물 등으로 약해져 있어 어지럼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낙상이나 골절 등에 더 취약할 수 있다"며 "어지럼증으로 인한 2차 사고는 노년기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노인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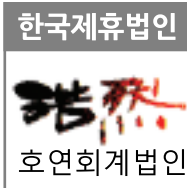
울증으로까지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지럼증 치료는 원인 파악이 우선인 만큼 평소 자신이 느끼는 어지럼증의 증상을 메모해두는 습관은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민간요법이나, 자가처방을 통한 약물 복용하기보다는 전문의를 찾아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게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 ‘노년층 어지럼증’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COVID 백신을 접종받으십시오.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좋은 기회입니다. FDA 승인도 받았습니다.
COVID 백신은 확산을 늦추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 그리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COVID 백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cdc.gov/coronavirus](https://www.cdc.gov/coronavirus)를 방문하십시오.

매사추세츠한인회

THE KOREAN AMERICAN SOCIETY OF MASSACHUSETTS



매사추세츠 한인 동포 여러분, 평안을 기원합니다.
매사추세츠한인회 서영애 회장 이하 임원들 인사드립니다.
매사추세츠한인회칙 제4장 12조에 의해,
2021년 총회를 소집하며, 일정과 주요안건을 공고 합니다.

일 정 : 2021년 6월 5일 오후 1:00

장 소 : COVID-19으로인해

Zoom Meeting 과 직접참여를 병행 합니다.

Zoom Meeting ID : 785 089 1183

직접참여장소 :

북부보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주차장

244 Lowell St. Andover, MA 01810

주요안건

- 2021년 한인회장, 임원진 소개 와 인사
- 2020년 한인회 결산 감사보고
- 2021년 한인회 사업보고
- 기타 안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사업체와 가정에 어려움을 압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욱 화합하고 사랑을 나누는 한인회를 다짐합니다.

정회원들께서는 꼭 참석하시어 의결안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총회당일 직접 참여하시면 정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접 참여 장소에서는 COVID 주정부 가이드 라인을 준수합니다.

직접 참여 장소에서는 태극기, 마스크 기념품을 나누어 드립니다.



매사추세츠한인회 임원진일동

매사추세츠한인회, 어머니의 마음으로 안인동포들과 함께합니다.

2021년 5월 20일 연세
매사추세츠한인회 정회원으로 등록에 주시고,
후원에 주시고,
이사님으로 수고에 주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안인동포 안마당을 약속합니다.

정회원 : 매년 어느때나 신규 가입하며 회비는 \$ 20 입니다.
각종 행사와 총회에 참석하여 결의권과 피선거권을 갖습니다.
회원가입을 원하시면 한인회로 연락주십시오.

김유경, 조종희, 이 숙, Brian 심, David 심, Eunico Kim, Hyon Lion, 변성우, 윤경애, 강윤주, 강재운, 영사, 고인순, 권오관, 권정자, 김경문, 김경일, 김경자, 김금련, 김남조, 김도윤, 김동원, 김병국, 김영옥, 김용진, 김 아그네스, 김은선, 김은주, 이창경, 김은한, 김인숙, 김정분, 김종철, 김추영, 남경환, 남진병, 박금순, 박진희, 박찬모, 박천우, 허 훈, 배홍선, 이봉자, 서영애, 서윤권, 서태환, 신동안, 심구식, 이학빈, 안수잔, Richard 심, 안병학, 김경순, 양미아, 양은경, 염태숙, 오영수, 오진옥, 유정심, 유대근, 신 영, Tom Shin, 윤철호, 윤희경, 이경은, 이기환, 윤순정, 이길신, 이병철, 이봉인, 이선화, Andrew Lee, 이영수, 이정자, 이정희, 임은주, 임현미, 장수잔, 이무선, 전성현, 정대훈, 강성미, 정마네카, 정명철, 장인숙, 정애나, 정에스더, 정석호, 진명희, 진성근, 채동희, 채숙이, 최민섭, 최영진, 최현주, 하경남, 하정애, 하남줄, 한순용, 해더리, 허 준, Kellie Kim Thielen, 조은구, 김창근, 이재봉, Jennifer Fitch, 배준호, 이재숙, 이동익, 박영우, 우미연, 이경순, 민우제, 민수정, 최인숙, 장선미, 이숙희, 김여령 (접수날자 순으로 정리)

후원하신분 : 금전으로 물품으로 후원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을 원하시면 한인회로 연락주십시오

장수인, Andrew Lee, 장인숙, 김경문, 김금련, 김용진, 김은영, 김은한, Kellie Kim Thielen
민주평통, 서윤권, 서태환, 신 영, 신영목, 안수잔, 양은경, 오진옥, 윤철호, Jennifer Fitch
이경은, 이기환, 이두영, 이병철, 이정자, 정대훈, Emily Bordrac, 윤희경, 이재숙, 김창근
진명희, 프리미어 릴얼티, 하경남, 허 훈

이사회 : 당연직, 선출직, 직능직 이사로 참여하시며, 이사비는 \$ 300

회장 ; 장인숙, 부회장; 김동원, 총무; 김도윤, 서기; 강윤주, 감사; 이정희, 리온현주
서영애, 정대훈, 남진병, 박천우, 허 훈, 김추영, 최현주, 김병국, 해더 이, 김여령
최영진, 안병학, 김은주, 변성우, 조은구, 박찬모, 이무선, 전성현, 윤철호, 양미아
Anna Jung, 이광원

안인회 임원 명단

회장 ; 서영애, 수석부회장; 남진병, 사무총장; 정대훈, 재무; 신현이
부회장; 신 영, 진명희, 안수잔, Kellie Kim Thielen,





NAMU · 나무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 금메달리스트
대통령 훈장 수훈/15년 이상의 경력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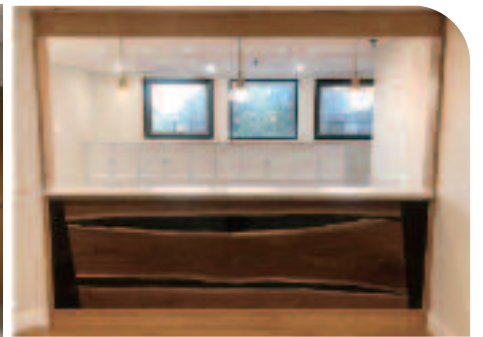
- 주방, 욕실, 방, 베이스먼트 리모델링
- 집, 상점 레노베이션
- 커스텀 캐비닛, 바닥, 데크
- 원목 테이블, 가구

WHY NAMU

- ✓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 ✓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 ✓ 철저한 시간 약속과 빠른 공사



BEFORE



AFTER



무료
견적상담

www.namuma.com
info@namuma.com / 617-775-4771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MA 전지역, NH 일부지역 공사)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